

일본 농촌에서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사례연구*

김 일 철 · 이 문 응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일본의 농촌은 점점 공동화되고 농업은 축소되었으며 농민은 고령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왔다. 농촌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주기 위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역활성화 운동은 지금 일본 전국을 휩쓸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농촌사회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운동이 어떠한 과정으로 그리고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탐색해 볼으로써,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농촌과 농업이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고자 착수되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지역활성화 운동의 두 사례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사례로는 오오이파현의 오오야마 마찌와 쿠마모또현의 오구니 마찌가 선정되었고, 현지조사는 1992년 2월에 탐색적인 사전 답사를 거쳐서, 1993년 2월초에 실시되었다.

두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각 지역사회가 어떤 작품의 지역활성화 운동을 만들어 나가느냐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례가 모두 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철저히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두 지역이 모두 오지의 산간촌이지만 결과적으로 오오야마 마찌는 농업에 치중하면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는데 비하여, 오구니 마찌는 농업 및 임산자원, 지열 및 온천자원을 활용한 제3차산업에 더 큰 비중을 둔 지역활성화 사업을 연출해 내었다.

성공적인 지역활성화 운동을 위한 요인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재양성과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었다. 우리의 두 사례에서 모두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을의 현재와 미래를 뛰어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추세와 국제사회의 동향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강력한 인간적인 유대에 기초한 촌락공동체의 전통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일본사회에서는 구성원들간의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이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개별 농가의 성공사례보다는 마을 전체의 발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기초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난 4반세기 동안의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고, 이제 농촌에서보다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서 살고 있다.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산업구조는 수출지향적 인 방향으로 재편성되었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우리의 농촌은 이제 농업노동력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은 다시는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농촌도 이들 젊은이들을 다시 끌어들일 만한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지 못했다. 연로한 부모가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허물어져가는 옛집을 지키고, 도시로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빈 집들, 학령기의 어린이들이 없어서 폐쇄된 국민학교들,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서 묵하고 있는 논밭들은 대도시 근교농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를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의 일면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루파이 라운드」의 물결마저 밀어닥쳐서 그나마도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우리 농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주고 있다.

이웃 일본도 현재 우리의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한 바 있다.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일본의 농촌은 점점 공동화되고, 농업은 축소되었으며, 농민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기 위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역활성화 운동은 지금 일본 전국을 휩쓸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농촌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농민들 스스로가 자구적인 전략을 짜내고 혁신적인 노력을 거듭하면서 이제 ‘농촌도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곳’이라는 점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고향 마을로 돌아오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농촌의 사회 및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각종 지역활성화 계획의 일선에서 땀을 흘리는 일은 이제 일본 농촌의 구석구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무라오꼬시’, ‘무라즈꾸리’, ‘一村一品운동’, ‘낫뽕이찌즈꾸리(일본에서 첫째가는 것 만들기)’ 등 갖가지의 아이디어로 농촌에 활력소를 접어넣으려는 운동은 일본 전역을 진동시키고 있다. 다양한 지방 특산물들이 도시로 공급되고, 농촌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추진되는 각종 이벤트가 도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농협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기업을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제3섹타’라는 개념은 농민들에게도 친숙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 모두가 쓰러져가는 폐폐된 일본농촌을 되살리려는 생존전략으로 기획된 것들이었다.

이 연구는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농촌부흥 및 지역활성화 운동에 성공적으로 기반을

확보한 일본 농촌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농촌운동의 역동적인 측면과 한계를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에 유익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농촌과 농업도 일본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 이웃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 농촌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였다.

2.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공동연구자 두사람은 1992년 2월에 2주일간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 연구를 위한 탐색적인 조사로 큐슈지역의 후쿠오카(福岡縣), 오오이따(大分縣), 미야사끼(宮崎縣), 가고시마(鹿兒島縣), 쿠마모또(熊本縣) 등 5개 현을 함께 답사한 바 있다. 주로 농촌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현장을 찾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현재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알아보았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어디를 가나 농촌지역이 활발하게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들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농촌 사람이나 도시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요원들은 농촌을 진흥시키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궁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합심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창출해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었다.

그 중에서 오오이따현의 오오야마 마찌(大山町)와 쿠마모또현의 오구니 마찌(小國町)는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였다. 양자가 모두 내륙 깊숙히 위치한 전형적인 빈한한 농촌에서 이제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부유한 농촌으로 탈바꿈하였고, 농민들의 시각도 국제적인 것으로 넓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공동연구자들의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했다.

이에 공동연구자들은 이 두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활성화 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일본 농촌사회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에서는 정보화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와 농촌, 구체적으로는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 사이를 연결짓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미 상당한 노우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자료와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두가지 방향에서 수집되었다. 첫째는 문헌조사였다. 우선 첫 번째의 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활성화 운동의 윤곽을 파악하였고, 이를 일본 전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 두개 지역의 사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폭넓은 문헌조사를 시도하였다. 문헌연구는 지역활성화 운동의 기초적 배경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는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지역활성화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농촌과 농업이 어떻게 해체와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농업과 농촌의 변화’에 유의하였고, 지역활성화 운동이 오늘날과 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온 과정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둘째는 현지조사에 의한 자료수집이었다. 이는 공동연구자들의 직접적인 현지조사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992년 2월에 이어서 1993년 2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다시 이 두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지역활성화 운동의 현장을 관찰하고, 주민들 및 관련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제1차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이미 이 지역의 농촌운동 경험을 담은 자서전적인 자료와 연구업적을 수집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는 두 지역의 사례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유의하였고, 그 차이가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II. 일본 농촌의 지역활성화 운동

본 장은 일본의 농업과 농촌사회가 겪어온 변화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일촌일품운동, ‘일본제일(日本一) 만들기’ 운동과 같은 일본 농민들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지역활성화 운동과 그 사업을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농업과 농촌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의 일본 농촌의 생존방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첨경이 되리라 생각된다.

1. 일본의 농업과 농촌

일본의 근대사회는 1868년의 明治維新으로 시작된다. 명치유신 이전의 260년간의 德川幕府의 封建時代는 엄격한 土農工商의 신분제 사회로서 백성들은 토지의 매매가 금지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었으며 해마다 막대한 공출을 내야 하는 폐쇄적인 빈곤사회였다. 명치유신 때만 하더라도 농민이 전체 인구의 80%를 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사회였다.

명치유신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開國政策은 1910년대에 오면서 독점자본의 형성을 보기까지 눈부신 자본주의 발전을 거듭한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발전은 동시에 軍國主義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미국, 영국 다음으로 경제적 부국으로 성장하면서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전쟁이 세계를 주름잡게 된다.

이러한 경제력의 급성장은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던 일본이 농업을 회생시킴으로써 가능했다. 즉 명치유신 직후까지 80%를 점했던 농민은 明治政府의 재정수입의 80%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국가의 공업육성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업국이었다. 1872년의 명치유신시대 총인구가 3,481만명이었던

것이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는 7,215만명으로 2배 이상의 인구증가가 있었지만 농가호수는 계속 550만호를 유지해 왔다. 그간의 공업발전과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와 농가인구가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이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는 것은 일본농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업을 天職으로 생각하고 가계를 전승해 내려온 농민의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농업은 농가호당 평균 1정보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내려온 家族的 零細農業이 그 특징을 이룬다.

〈표 1〉 경영규모별 농가 구성(%)(정보)

년도\정보	0.5 이하	0.5-1.0	1.5-2.0	2.0-3.0	3.0-5.0	5.0 이상	계
1908(明 41)	37.3	32.6	19.5	6.4	3.0	1.2	100%
1910(明 43)	37.6	33.0	19.3	5.9	2.9	1.3	100%
1920(大 9)	35.3	33.3	20.7	6.1	2.8	1.6	100%
1930(昭 5)	34.3	34.3	22.1	5.7	2.3	1.3	100%
1940(昭 15)	33.4	32.8	24.5	5.7	2.2	1.4	100%

자료: 福武直 1965: 5.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본 농업은 明治時代로부터 1정보 이하의 경영농가가 약 70%를 차지해온 전형적인 영세농업이었다. 경영규모의 영세성은 농민의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38년도의 農家一齊調査에 의하면 1, 2 種 兼業農家가 전체의 54.8%를 차지하리 만치 농민들은 가난하였다고 한다.

2차대전 이전까지의 일본농민은 약 60%가 借地農民이었다. 그리하여 경영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엄격한 封建主義的 地主-小作關係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었다.

〈표 2〉 자·소작별 농가구성(%)

년도	自作	自小作	小作	계
1888(明31)	33.4	46.0	20.6	100%
1910	32.8	39.5	27.8	100%
1920	30.7	40.9	28.4	100%
1930	30.6	42.6	26.8	100%
1940	30.5	42.4	27.1	100%

자료: 福武直 1965: 10.

위의 표에서 보듯이 30%에 가까운 純小作이 1910년 이래 계속 존속되어왔고 약 40%의 自小作도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地主制度는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地主들은 일본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支配層이었다. 이러한 지주제도는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농촌사회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었다.

1차대전이 일어나는 시기부터 일본의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을 형성하리 만치 2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주들의 정치적 세력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오면 고율의 소작료에 대한 農民抵抗運動이 나타난다. 農民組合이 결성되고 도시의 노동운동과 함께 각종 農民運動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이때부터 농민과 소작인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하여 自作農創設維持政策이라든지 小作料適正化政策 같은 것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일본이 그 이후 점점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식량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작권 보호와 소작료의 통제, 그리고 식량공출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토지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게 된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공업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여야만 했으며 그러기 위해 토지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1945년의 미점령군 당국에 의한 1차 農地改革이다. 이에 의하면 농가당 5정보까지 농지소유를 인정하고 5년간에 걸쳐 소작지의 40%를 自作地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다.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봉건적 지주제를 없애고 일본농민을 봉건적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맥아더 점령군 정부는 이를 좀더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1946년에 다시 2차 農地改革을 실시한다.

이 개혁에 따라 不在地主의 小作地 전부와 在村地主의 1정보 이상의 소작지는 정부에 의하여 매입되고 이것을 다시 소작인에게 매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전까지 관행으로 되어왔던 소작료의 物納制를 없애고 모두 金納制로 바꾸었다. 고율 소작료도 물론 통제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대략 2년 안에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전국의 논 53%, 그리고 밭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소작지는 약 1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농지개혁 이전에는 30% 내외이던 자작농이 1950년에는 61.9%로 상승하였고 1970년에 오면 79.4%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후의 개혁조치를 통해 일본 농촌과 농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작농업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급격히 개선되고 농업생산은 팔복할 정도로 향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농지개혁은 農地所有權의 이동을 통한 自作農育成에는 성공하였으나 農業經營規模의 확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표 4>를 보면 경영규모의 영세성은 농지개혁 이후 약간 더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1정보 이하의 영세농이 1960년에는 70.0%에 이르고 이것은 농지개혁 이전인 1940년도(<표 1> 참조)의 66.2% 보다 오히려 약간 상승하고 있다. 1980년에 오면 1정보 이하의 농가가 69.8%로 별로 변동이 없는 반면 0.5 정보 이하의 농가가 41.6%

〈표 3〉 자·소작별 농가구성(%)

년도	自作	自小作	小自作	小作	계
1946(昭21)	32.8	19.8	18.6	28.7	100%
1950(昭25)	61.9	25.8	6.6	5.1	100%
1955(昭30)	69.5	21.6	4.7	4.0	100%
1960(昭35)	75.2	18.0	3.6	2.9	100%
1970(昭40)*	79.4	16.0	2.8	1.6	100%

자료: 福武 直 1965: 19.

* Takahashi 1988: 97.

〈표 4〉 경영규모별 농가구성(%)

년도/정보	0.5 이하	0.5-1.0	1.0-2.0	2.0-3.0	3.0-5.0	5.0 이상	계
1946(昭21)	39.2	31.2	23.5	3.7	1.4	1.0	100%
1950(昭25)	40.8	31.9	21.7	3.4	1.2	0.9	100%
1955(昭30)	38.4	32.7	22.9	3.5	1.4	1.1	100%
1960(昭35)	38.3	31.7	23.6	3.8	1.6	1.0	100%
1970(昭45)	37.9	30.2	24.1	4.8	1.7	1.3	100%
1980(昭55)	41.6	28.2	21.2	5.3	2.2	1.5	100%

자료: Fukutake 1982: 49.

로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농가의 존속은 일본 농업의 고질적인 약점이 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책이 항상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할 겨를도 없이 1955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2차산

〈표 5〉 전업·겸업별 농가호수(%)

	1941	1950	1960	1970	1980	1985*	1989*
專業	41.5	50.0	34.3	15.6	13.4	14.3	14.4
1種兼業	37.3	28.4	33.6	33.7	21.5	17.7	13.7
2種兼業	21.2	21.6	32.1	50.7	65.1	68.0	71.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Fukutake 1982: 51.

* Matsuda 1992: 11. (1종겸업은 농업소득이 비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이고, 2종겸업은 비농업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겸업)

업이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농촌인구를 대규모로 도시지역으로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55년까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20% 정도는 되었지만 1960년에 오면 10%정도로 격감하면서 농업과 타산업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만 갔다. 1960년에 들어서면서 농가인구는 29.6%, 농업인구는 29.8%로 떨어진다. 그리고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가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농가의 겸업현상이 급격히 증가되어 갔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농업은 1960대부터 완전히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즉 전업농가의 급격한 감소와 2종겸업이라는 파트타임 농업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그것이다. 현재에는 일본의 농업이 2종겸업의 파트타임 농민들에 의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을 家業으로 계승해 내려오던 전통적 일본 농민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高度經濟成長期를 맞아 농촌을 떠나 직업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일본은 1961년에 農業基本法을 제정하여 위기에 놓인 농업문제를 개선시키 보고자 하였다. 농업기본법은 도시근로자의 생활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2정보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종겸업을 하는 영세농가중에서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농가의 농지를 팔도록 권고하여 이를 專業農家에게 양도함으로써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自立農家를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시에 농촌의 하부구조를 현대화해 보겠다는 것도 물론 포함되었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할 수는 없었다. 대규모의 농민들이 공장과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는 과잉성장을, 농촌에는 경제적 빈곤과 과소(過疏)인구 현상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인구이동의 극치를 이룬다. 이 기간은 물론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해당된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공업형으로 변하고 인구는 도시로 집중되었으며 농촌에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전업농가의 감소, 그리고 겸업농가의 압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표에서 우리는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과정과 농업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특히 1960-70년대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6〉 산업별 취업인구(%)

산업\년도	1940	1950	1960	1970	1980
1차산업	44.0	48.5	32.7	19.3	10.9
2차산업	26.1	21.8	29.1	34.0	33.5
3차산업	29.2	29.6	38.2	46.6	55.4
구분불능	0.7	0.1	0.0	0.1	0.2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Fukutake 1982: 24.

1차산업 취업자 비율은 1970년에 오면 타산업에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1980년에는 2차산업 종사자수의 1/3로 전락하고 말았다. 농업기본법은 경영규모확대에 의한 자립농가육성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농촌의 하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큰 공헌을 하였다. 1962년부터 실시된 전국 總合開發計劃(舊全總), 新產業都市 建設促進法, 1964년도의 林業基本法, 1965년도의 山村振興法, 1967년도의 公害對策基本法, 1969년도의 제2차 전국 總合開發計劃(新全總), 1970년도의 過疏地域對策緊急措置法 등, 1960년대의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공업화로 인한 도시의 비대화와 지역발전의 격차 시정, 그리고 지역산업의 진흥, 농촌과 산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화급하게 수립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산업의 지방 분산, 중소도시 육성, 농촌과 농민에 대한 기본시설의 현대화에 커다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일본의 이농현상에서 특이한 점은 가족의 호주나 장남이 이농하기보다는 차남, 3남, 그리고 딸 가족들이 이농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장남의 경우 이농보다는 겸업을 하면서 농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일본농촌의 독특한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대 일본 농촌은 過疏人口, 高齡化, 所得貧困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이농으로 장래의 농업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 농림성의 농가경제 조사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농가의 농업소득을 이들과 비교하면, 전국평균으로

〈표 7〉 市町村의 인구증가율(%)

인구규모	1960-65	1965-70	1970-75	1975-80
市 100만이상	9.1	3.2	2.5	0.1
50-100만	24.6	14.1	14.9	6.2
30-50만	13.9	13.1	13.6	7.4
20-30만	14.8	17.3	12.6	7.6
10-20만	16.9	15.0	12.7	7.0
5-10만	7.8	10.6	11.9	7.4
3-5만	-1.0	0.3	4.7	2.9
3만이하	-8.6	-8.5	-5.4	-1.8
町村 3만이상	33.3	41.4	37.4	24.1
2-3만	0.3	3.2	8.0	8.2
1-2만	-4.2	-2.7	1.6	3.4
5천-1만	-8.3	-8.0	-3.7	-1.1
5천이하	-13.4	-14.0	-9.2	-5.0
全國	5.2	5.5	7.0	4.6

자료: Fukutake 1982: 21.

1965년에 63.2%였고 1987년에는 24.4% 밖에 되지 않았다. 2정보 이상의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농업소득은 1965년의 87.1%에서 1987년의 35.4%밖에 되지 않았다 (Isobe 1992: 2). 이와 같이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은 제조업종사자의 임금소득에 비하여 업청난 격차를 가지게 되면서 인구의 都市集中과 脱農人口의 증가, 그리고 경업농가의 증가가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이제 농촌과 도시에서의 인구증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자.

1960년 이후 인구 1만명 이하, 특히 인구 5,000명 이하의 村落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난 것을 <표 7>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이 70-80년에 오면 상당히 진정되어 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의 소득수준은 도시인에 비하여 낮았지만 그들의 소득구성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표 8> 농가소득 구성비(%)

	1960	1970	1980	1988
농업소득	50.2	31.9	17.0	12.8
비농업소득	41.0	55.6	63.7	64.7
이전소득	8.8	12.5	19.3	22.5
총소득	100.0	100.0	100.0	100.0

자료: 日本農林省『農家經濟調査』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1988년 현재 12.8%로 격감하였고 그대신 비농업소득은 64.7%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아 이제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업은 경제적 소득수단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위치 변화와 인구이동으로 인한 외연적 변화는 농촌 내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가인구는 해마다 격감하여 1960년의 28.70%에서 1990년의 9.18%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사는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1960년의 46%에서 1990년의 59%로 증가되었다(1990년의 인구센서스; Isobe 1992: 30에서 재인용).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농촌인구는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市町村合併事業(1953년)으로 인한 촌락단위의 행정구역이 확대되어 농촌부락에도 비농업종사자가 함께 살게되는 형태로, 즉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형태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말단 행정단위인 町村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도시근로자가 함께 살도록 되었던 것이다.

1953년에 실시된 町·村合併促進法에 따라 일본의 지방행정단위는 다음 표와 같은

〈표 9〉 町村 합병 전후의 인구규모별 市町村數

인구규모	1950	1959
10만이상	94	109
5-10	91	165
1-5	972	1,862
1만미만	9,317	1,500
계	10,414	3,636

자료：東畑・神谷 편 1965: 319.

대개혁이 단행되었다.

위의 〈표 9〉에서 보듯이 중소도시의 행정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물론 행정단위의 촌 안에도 여러개의 자연부락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합병이전에는 ‘무라’(村)였던 곳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많은 지역에서 인근 촌락을 포함하는 광역행정단위인 ‘마찌’(町)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농촌지역의 개념이 바뀌었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사는 곳이 농촌부락이면서 비농업종사자도 함께 살게 되는, 말하자면 都農共存 지대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을 시작으로 60년대와 70년대에 오면서 대도시의 비대화와 공장들의 지방분산 그리고 지방산업의 육성 등에 착수함으로써 인구의 지방 유입이 많아지고 농촌지역에도 하부구조의 현대화가 획기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농촌부락과 도시와의 연계는 한층 밀접하게 된 셈이다.

〈표 10〉 농촌취락과 인구집중지역(DID)과의 자동차 소요시간

	1980(취락수 : %)		1990(취락수 : %)	
30분미만	59,093	41.5	86,459	61.7
30분-1시간	49,704	34.9	41,795	29.8
1-1.5시간	24,140	17.0	8,690	6.2
1.5시간이상	9,440	6.6	3,178	2.3
계	142,377	100.0%	140,122	100.0

자료：日本農林省 農業聚落調査(Isobe 1992: 30 재인용)

위의 〈표 10〉에서 보듯이 10년 전에 비하여 농업취락의 수는 약 2천개가 줄어들었지만 그 중 약 62%의 취락에서는 인구집중지역인 도시와의 자동차 소요 시간이 30분미만으로 단축될 정도로 도로 및 교통사정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걸리는 취락 수는 8.5%인 약 1,200개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것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농

촌에 거주하면서도 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농촌을 외면하던 사회적인 풍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2. 일본의 농촌생활: 가족제도와 촌락생활

일본의 농촌은 엄격한 家父長的 家族制度와 共同體的 村落生活原理에 의하여 계승되어왔다. 일본의 가족은 단순한 가족집단이 아니라 〈家〉(ie)로서 간주되어 왔다. 〈家〉는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연속체로서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직계적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家〉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핵심이었다. 이리하여 강력한 家長權의 확립이 여기에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관념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왔다. 〈家〉의 전통보다 개인의 의사가 중요시되었으며 〈家〉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관념이 점차 힘을 약하게 되었다. 家長의 農業經營權도 후계자에게 이양되어 갔고 농업경영의 중심은 家長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더욱이 家長 스스로 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부녀자들이 농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家長權의 약화는 자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농토와 가계를 지켜야 한다는 농촌의 〈家〉전통은 일본 농민들의 마음 속에 깊숙히 간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농촌에서는 몇몇 가구가 소규모의 聚落을 이루어 살고 있는 集村 현상이 뚜렷하여 매우 강력한 공동체적 성격이 형성되었다. 농업에 있어서의 공동작업, 관혼상제에서의 상부상조, 불 관리, 가옥 수리 등의 협동작업을 통하여 부락의 一體性이 강하게 확립되어왔다. 부락의 이러한 일체성은 각부락의 守護神, 즉 鎮守에 의하여 상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락의 공동체적 성격도 현대에 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 과거의 자급자족적인 村落共同體도 이제는 생활권의 확대, 공동노동의 축소 내지 소멸, 개별 경업활동의 확대, 外地人的 유입, 離農民의 증가,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그 성격이 점차 변화되어 갔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로부터 떨어진 벽지 농촌부락에서는 과거와 같은 강한 촌락공동체적 성격을 찾아 보기 어렵지 않다.

어떻든 현대의 일본 농촌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무라’(村)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든가 전통적인 ‘이에’(家)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대신 이러한 전통은 농촌, 특히 농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본 농촌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었다.

일본농촌의 촌락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이웃관계이다. 이웃하고 있는 두세집, 혹은 다섯집 정도를 단위로 하여 형성되는 〈組〉은 일본 촌락생활의 오랜 전통이 되어왔다. 德川時代에 만들어진 5人組制度는 마을을 지키는 경찰기능과 勸農과 節約을 강조하는 教化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明治時代에는 이 제도가 강요되지 않았지만 많은 부락에서 그것이 존속되었다. 그러다가 昭和時代에 들어와 경험하게

된 경제적 공황을 극복하려는 방책의 하나로 농촌경제의 활성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이〈組〉제도를 통해 부락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祖〉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더욱이 전쟁기간에는 上意下達을 목적으로 이〈組〉조직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다.

2차대전 후에는 町內會와 部落會, 그리고 5人組 제도는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수행의 하부조직이었다는 명분으로 미국 점령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촌락의 대부분의 경우에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이웃 5人組과 유사한 조직은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고 하며 그 조직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組〉조직은 촌락생활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부락조직의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조직은 농업생산에서의 공동노동, 도로 수리, 용수로 관리 등을 전통적으로 해왔다. 현대에 오면서 이외에도 여러가지 생활상의 협동과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부락에도 각종 이익집단이 생겨나고 각종 조직이 중첩되면서 〈組〉조직의 기능이 단순한 행정상의 전달매체로서 혹은 주민 조직 단위로서만 기능하는 곳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벽지 농촌의 자연부락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이웃간의 隣保組織으로서의 기능이 살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촌락의 〈組〉(이하 村組)는 처음에는 이웃 어른들만의 조직이었으나 이것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확대되어 年齡集團별로 어린이(子供)組, 若者(青年)組, 中老組, 老年組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組은 小若連, 혹은 天神講이라 불려 지기도 하면서 부락의 행사나 제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편적이었던 것은 若者組로서, 이들은 현대에 오면서 青年團이나 消防團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부락안전과 치안유지, 소방활동, 공동노동, 부락 제례행사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村組는 또한 부락 노인들의 葬禮에 대비하여 많은 지역에서 葬式組라는 것을 만들어 장례식에 관한 일체의 일을 담당해왔다고 한다. 1955년의 農業集落調查에 의하면 94%의 集落에 葬式組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한다.

村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기능은 종교적 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神社의 특징은 氏神(同族神)은 동시에 鎮守(마을 守護神)라는 점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同族部落의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조상의 神을 섬기는 것이 관례였으나 그 뒤에는 같은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면 모두 제사에 참여하여 함께 부락의 보호와 안녕을 기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락제사를 위해 村組는 큰 기능을 하였다.

종교와 신앙에 관련되는 村組로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講〉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佛教의 교리를 강의한다는 의미였으나 이 모임에 참여하는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講은 부락전체를 망라하는 경우, 해마다 대표를 파견하기 위하여 모이는 경우, 그리고 연령집단별, 성별로 구성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어왔다. 山神을 모시기 위한 山神講, 밭의 神을 모시기 위한 田神講 등은 부락전체와 관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伊勢講 같은 神社에 대표를 파견하고 정기적으로 회원집을 순회하면서 모이는 것이

위의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성들과 어린이들만으로 구성하는 모임 같은 것은 세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종교집단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교적 신앙보다는 친목과 오락적 기능이 강하게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이러한 宗教講이 존속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농촌의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지탱해 내려온 부락 내의 기본조직으로서의 村組는 일본농촌의 내부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현대 일본의 지방 각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는 이러한 村組組織이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즈끼(鈴木榮太郎)는 그의『日本農村 社會學原理』(1940)에서 自然村 개념을 제창하면서 자연촌이 지역적으로 三重의 同心圓으로 겹쳐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을의 제일 중심부를 第一社會地區, 그 외각을 第二社會地區, 맨 바깥을 第三社會地區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講>과 <組> 같은 내부조직과 집단은 第一社會地區에 속하고 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 즉 自然村을 第二社會地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촌들이 몇개씩 뭉쳐진 집단이 明治시대 이후 생겨난 行政町을 말한다고 한다.

스즈끼에 의하면 각 지구는 그 안에 있는 집단이 서로 누적되어 있으며 村落이라 할 때에는 3개의 地區가 누적되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의 유명한 自然村 精神은 第二社會地區가 가지는 강력한 자주성과 자립성에 의하여 대표되는데 스즈끼가 말하는 자연촌정신을 도리고에(鳥越皓之)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방향을 정해 주는 행동규범을 말하며 그 행동규범은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생활의 축적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정신이 활동하는 장소는 개인간에 엮어가는 사회과정 속의 한순간 한순간씩이지만, 그에 대한 조짐은 고정적이라 할 수 있는 객관성을 제도와 습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1990:98)

이러한 스즈끼의 자연촌 정신은 일본 농촌사회학계의 또하나의 거장인 아루가 기자에몽(有賀喜左衛門)의 <生活意識>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도리고에 교수는 이 두사람의 유사한 접근을 논평하면서 일본 농민의 특성을 잘 지적하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자 모두 개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순수한 個人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즈끼는個人意志에는 과거의 마을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개인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루가는 개인 그 스스로 個的인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全的인 측면도 갖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개인이 상호관계를 갖는 경우 個的, 全的關係가 모두 성립한다고 본다.”(1990:100)

촌락생활에 있어서 농민이 주체가 되어 형성시켜온 生活組織의 규명에 정열을 쏟은 아루가의 일본 농촌사회 연구는 그의 이론적 기초를 농민의 창조성에 두었다고 가끼자끼(柿崎京一) 교수는 지적한다(柿崎京一 등 1988: 141). 농민의 생활 속에서 또 생활의

필요성에 의하여 信仰, 祭祀, 道德, 言語, 住居, 慣習 등이 창조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가는 이러한 데서 출발하여 촌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이에’(家)로 보고 촌락생활의 필요상 집들의 연합(家連合)이 창조되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여러 형태의 사회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柿崎京一 등 1988: 135). 이러한 집들의 연합形態로서 촌락생활의 기본조직이 되는 同族조직과 ‘구미’(組)조직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아무가의 ‘家連合의 二類型’이다.

이러한 아무가의 類型論은 그 뒤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좋은 예가 후꾸다께 다시(福武直)의 同族조직과 講組조직이라고 한다. 후꾸다께는 同族組織으로부터 講組조직으로의 이행 및 변천과정에서 일본 촌락생활의 본질을 찾고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柿崎京一 등 1988: 136).

이러한 일본 촌락의 자연촌 정신 혹은 생활의식이 일본 농민의 가치관과 행동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개념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일본 촌락이 계승하여 온 강한 共同體精神이라 할 것이다. 즉 개인은 역사적으로는 조상과 연결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연결된 ‘全體로서의 個人’이라는 정신은 오늘의 일본 농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오늘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단위의 각종 지역활성화 사업도 결국은 이러한 일본농촌이 가지고 내려온 전통적 가족제도, 동족조직, 그리고 村組組織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촌락공동체 조직과 그 의식의 현대적 연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지방에서 각종 지방단위행사를 조직하는 농민이나 지방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많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에 대한 강한 향수와 동경,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긍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소베 교수가 인용한 1991년도의 3개 촌락 농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祖上崇拜制度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율이 거의 80%에 이르고, “〈家〉는 영원히 농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찬성율이 아직도 40-6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사회가 공업화와 도시화에 의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직도 일본 농촌에서는 가족과 농업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타카하시 교수의 1985년도 2개 촌락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촌락은 아직도 농민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71-76%에 이르는 것을 보아도 촌락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촌락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촌락이 해나가야 하는 중요기능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보면 마을의 神社 행사(제사와 축제), 범죄예방과 소방, 장례식, 도로관리, 공회당과 운동장 관리, 수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 대단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농민은 아직도 촌락조직과 촌락생활에 대한 그들의 강한 집착을 여기서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다.

3. 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日本의 지역활성화 운동과 그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내용, 그리고 의의 등을 전국적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의 관찰대상이 되었던 사례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에 실시된 日本農政調查委員會의 전국적인 조사결과를 분석한 오가와(小川全夫) 교수는 전국의 각 지방에서 <무라오꼬시(村おこし)> 운동에 참여하는 지방민들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무라오꼬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因子가 추출되었다. 제1 因子 중 가장 의미있는 변수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인간형성에 도움이 된다>,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 촉진>, <농림·어업에 대한 이해의 촉진> 등의 동기가 正의 負荷量을 보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명도의 증가>, <관광산업의 진흥 및 개발>은 負의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2 因子로서 의미있는 변수로는 <過疏化의 방지>가 正의 부하량을, 그리고 <농림업의 진흥>, <지역산물의 판매 확장>은 負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제3의 因子로서 의미있는 것은 <지역산물의 판매 확장>, <농림업의 진흥>은 正의 부하량을, <문화적 刺戟의 도입>, <매력적 행정의 하나로서>는 負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제4 要因으로는 <도시인에게 제 2의 고향을 제공>이 正의 부하량을, <지역주민의 활성화>는 負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小川 1990: 58-59).

위의 분석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正의 부하량을 나타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중요변수는 제 1요인이나 제 2요인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계학적 분석을 보면 일본의 <무라오꼬시>운동은 적어도 농민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農村과 農民文化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써 농촌생활이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도록하게 하고 싶다는 일본농민들의 강한 희망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희망과 의지의 배경에는 농촌생활과 농민문화에 대한 일본농민의 대단한 자부심이 도사리고 있다. 도시생활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라오꼬시>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이 농가생활에 도움이 크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농민들이 말하는 참여 동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 즉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활성화 운동과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생활과 농촌생활에 도시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일본문화와 일본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말하자면 <하나의 文化運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은 뒤에 다시 주의깊게 살펴 볼 것이다.

<무라오꼬시> 운동의 구체적 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극히 다양하지만 오가와 교

수는 크게 관광사업, 유통사업, 우호사업으로 그 유형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분류는 매우 어렵기도 하고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 운동의 다양성과 그 성격을 개관하기 위하여 일본 農政調査委員會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인용하고자 한다.

〈표 11〉 「무라오꼬시」 사업의 종류와 착수시기(%)*

사업 \時期	-1974	75-79	80-84	85-	不明	계
(觀光事業)						
修學 旅行	9.0	14.0	37.0	34.0	6.0	100%
娛樂 施設	7.3	19.1	37.6	35.0	1.0	100%
觀光 이벤트	19.4	13.4	28.2	32.9	6.1	100%
空家 利用	17.4	16.1	30.3	32.3	3.9	100%
기타의 宿泊施設	23.0	16.6	23.6	31.0	5.8	100%
滯在形 리조트 施設	13.2	32.0	29.1	23.5	2.2	100%
SECOND HOUSE	27.8	-	16.7	49.9	5.6	100%
別莊村	61.6	7.7	7.7	17.9	5.1	100%
(流通事業)						
OWNER 制度	1.2	3.0	25.0	68.4	2.4	100%
후루사庄 宅配便	1.1	0.8	24.7	71.6	1.8	100%
直賣店	7.3	8.7	21.4	56.8	5.8	100%
朝市. 青空市**	6.6	14.8	37.9	34.1	6.6	100%
(友好事業)						
自然教室	12.0	12.4	32.0	41.2	2.4	100%
山村 留學	11.1	2.8	19.4	61.1	5.6	100%
農村農業 體驗	8.2	6.0	29.2	55.5	1.1	100%
體驗農園. 賃貸農園	6.3	13.8	42.6	36.3	1.0	100%
MINI 獨立園	-	2.1	37.5	57.3	3.1	100%
姉妹 提携	19.8	14.0	32.1	32.6	1.5	100%
후루사庄 會員	1.4	2.5	32.4	63.1	0.7	100%
國際 交流	15.6	13.6	28.2	40.2	2.4	100%

자료: 日本 農政調査委員會 調査報告書, 1988, むらおこしと都市・農村交流の全國的展開状況. (小川 1990: 61; 재인용)

* : % 표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市町村의 總數를 100으로 한 수 자임.

** : 아침 市場, 푸른하늘에서 펼치는 市場

위의 표를 자세히 보면 초기에는 別莊村, SECOND HOUSE, 기타 宿泊施設, 滞在形 리조트 시설 등과 같이 비교적 몇개의 사업에만 인기가 있었으나 80년대에 오면서 각

종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후루사또 宅配便, OWNER 제도, 후루사또 회원, 직매점, 농촌 농업 체험, Mini 독립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 나열한 모든 사업이 초기보다는 최근에 올수록 훨씬 많은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만 別莊村 사업만은 초기에만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그 후로는 아주 부진했던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사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표 12〉 「무라오꼬시」 사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대한 농민의견

順位별 \ 成果	% *
1. 새로운 產物이 개발되었다	62.5
2. 매스콤 쭈재, 기사 등이 증가하였다	61.7
3. 생기있는 사람들과 집단, 조직, 단체 등이 출현	55.4
4. 知名度(市町村의 이름, 산품, 이벤트 등)가 향상	55.0
5. 관광객과 특별회원이 증가	49.1
6. 工藝, 藝能이 부활, 창조되었다	38.7
7. 다른 市町村과의 연대, 교류사업이 시작되었다	32.7
8. 전화, 우편, 소포, 宅配便 등이 증가	30.5
9. 숙박시설의 이용자가 증가	28.3
10. 새로운 조직과 집단이 탄생	27.1
11. 인적교류가 증가, 심화되었다	26.0
12. 여러 단체와의 연대강화	24.9
13. 주민의 생활태도 변화	23.0
14. 行政의 文化化, 행정기구의 혁신	23.0
15. 農林業의 서비스 경제화가 활발	22.3
16. 定住人口가 증가(감소경향의 후퇴 포함)	21.6
17. 새로운 교류시설이 출현	21.6
18. 새로운 업자들이 진출해옴	20.8
19. 국제적 시야가 넓어졌다	18.6
20. 타 市町村에도 영향이 미쳤다	16.4
21. 교류대상인 都市에 농촌의 거점시설이 생겼다	12.6
22. 生態界重視의 농업이 생겨 났다	12.3
23. 자산보유에서 자산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11.9
24. 찾아오는 손님의 증가로 처리업무가 증가	11.2
25. 교통기관의 이용이 증가	9.7

자료：日本 農政調査委員會, 1986年度 農村集落構造分析 調査報告書. (小川 1990: 68; 재인용)

* : 조사대상 269 市町村에서 해당 성과에 대하여 “성과 있다”고 대답한 市町村의 百分率.

이러한 운동으로 일본 농촌에는 새로운 활기가 생겨나고, 외부인의 방문이 증가하였고, 과거의 전통과 문화가 부활되고, 주민의 生活態度가 발전하는 등 새로운 農村創造活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은 이와 같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도에서 지역활성화 운동은 도시인과 농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농촌의 문화적, 경제적 산물을 도시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이 농촌을 필요로 하도록 그 욕구를 개발하고 또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심화시키면서 진행시키는, 말하자면 都農간의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상호관계라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은 바로 都農간의 교류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國土廳과 農林省에서도 바로 이러한 교류사업을 기초로 한 농촌 부활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農林省에서도 마을 마쓰리(祝祭)나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1993.1월 신문보도).

1987년 가을에 출범한 타케시타(竹下) 내각의 기본구상인 日本列島 후루사또(ふるさと; 故郷)論에 영향을 받아 일본 전국에 이러한 <무라오꼬시> 운동이 확산되자 일본의 지방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自治省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정부의 사업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본 自治省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만들기>(地域づくり) 사업의 핵심은 “지방이 지혜를 내고, 나라가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에 의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地域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역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내용을 日本 自治省의 자료(地方自治政策研究會 編,『全國ふるさと創生一億円 デ-タブツク』, 1989)를 이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3,057개의 전국의 모든 市町村에 각기 1億円씩 (1988년에 2,000만엔, 그리고 1989년에 8,000만엔)을 보조하고, 全國의 市町村을 추진 주체로 하여 시행된 自治省의 이 <후루사또 創生> 사업은 일본의 지방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이 사업의 보급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각 都道府縣에 1億円씩 (역시 1988년에 2,000만엔, 그리고 1989년에 8,000만엔)을 특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89년 1월 31일 自治省 내에는 事務次官을 本部長으로 하는 <후루사또 創生 推進本部>를 발족시키고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정부의 内閣에도 <후루사또 創生 및 지역활성화 추진에 관한 關係省廳 連絡會議>를 두어 관계기관간의 협조와 조정, 그리고 관계기관별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앞의 책, 前文).

이 사업의 추진은 각 市町村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 전통, 문화, 산업 등의 사정을 파악하여 무엇이 지역의 특성이며 과제인가를 인식하고 지역의 장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표 13〉 사업의 특색별 건수

사업의 특색	건수
'마을 만들기' 추진 등 活性化 全般:	2,337건
지역의 image 만들기	1,191
日本第一 만들기	55
〈XXの里〉 만들기	191
〈XXの國〉 만들기, mini 獨立國	18
人才의 育成, 組織 만들기	722
기타	160
지역문화의 진흥에 의한 活性化 全般:	1,045건
傳統文化의 繼承과 活用	534
새로운 후루사토 文化的 振興과 發展	438
기타	73
地域經濟의 活性化 全般:	2,022건
농업수산업의 진흥	420
상공업의 진흥	214
지역특산품의 개발	295
관광진흥,	819
리조트의 정비, 개발	178
convention 도시 만들기	14
기타	82
매력적인 이벤트 개최에 의한 活性化:	825건
문화 이벤트의 실시	256
스포츠 이벤트의 실시	130
관광 이벤트의 실시	187
독특한 이벤트의 실시	191
기타	61
지역간 교류에 의한 活性化:	291건
자매도시	59
도시 · 농촌교류, 農山漁村留學	150
특별村民 · 후루사토會員制度	28
기타	54
國際交流에 의한 活性化:	332건
友好·姉妹都市와의 교류	133
독특한 國際化的 추진활동	118
기타	81

〈표 13〉 계속

사업의 특색	건수
교육, 복지의 充實, 고령화사회에의 對應全般:	581건
독특한 健康 만들기 사업	148
生涯教育의 추진	215
기타	218
기타의 특색사업:	1,536건
주민참가	409
지역정보화	37
경관의 보존과 활용	362
자연 및 지역특수자원의 이용	375
개성적인 건조물, 복합적인 시설	161
불용자원의 활용	13
기타	179
총 계	8,969건*

자료: 地方自治政策 研究會 편, 『全國ふるさと創生1億円 データーブック』, 1989: 7.

* : 1 개의 사업이 복수의 특색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색별 사업총수는 8,969개가 되었으나 총 사업개수는 4,240개 이다.

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는 이 사업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지역의 지혜와 정보를 최대한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의 책, 前文).

사업내용은 각 지역의 다양한 역사, 전통, 문화, 산업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市町村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고안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人才의 육성, 지역간 교류, 국제교류,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 아이덴티티의 확립, 이미지 만들기, 지역특산품의 개발, 지역정보화의 추진, 이벤트의 개최, 지역복지 서비스, 건강 만들기, 생애학습 등 지역사정에 맞는 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앞의 책, 前文).

이와 같이 일본 自治省에서 실시한 이러한 지역활성화 사업은 中央政府에 의한 획일적이며 上意下達식 방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으로 장려되었으며 이것은 3,245개의 전국 市町村과 東京都의 23개 特別區에서 일제히 착수되었다(앞의 책, 1장).

1989년 6월 현재 전국의 각 市町村에서 보조금 1억엔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할 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보면 총 4,240개의 사업이 된다. 이때 일본에서 〈사업이 확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보조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議會의 의결을 거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실시계획이 확정된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은 거의 100% 실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 확

정된 사업을 그 특색별로 보면 <표 13>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가장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 이미지 만들기 사업」, 「관광진흥 사업」, 「인재육성, 조직 만들기 사업」, 「전통문화의 계승과 활용 사업」, 「새로운 후류사또 문화의 진흥과 발전 사업」, 「농림수산업의 진흥 사업」, 「주민참가 사업」, 「자연 등 지역의 특수자원의 이용 사업」, 「경관의 보존과 활용 사업」, 「지역특산품의 개발 사업」, 「문화 이벤트의 실시 사업」, 「생애교육의 실시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80년대는 ‘地方의 時代’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오오이타현(大分縣)에서 「一村一品運動」을 창시하여 전국으로 지역활성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한 하라마츠(平松守彦) 知事が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각 市町村이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면서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을 만한 특산품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그의 말을 빌려보자. “일촌일품 운동은 지역의 주체적인 행동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산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村 만들기(むらづくり)〉의 의욕과 정열을 불태우고 활력에 찬 지역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물건 만들기가 아닌 것이다.” 그는 이 운동이 ‘地域에 뿌리를 둔 산업과 결부된 특산품 만들기’로 발전하도록 하였고, 각 町村에서 특색있는 특산품 하나씩을 만들도록 권장하여 이것을 ‘일촌일품’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平松知事(1982:19-38)는 일촌일품 운동을 제창하게 된 배경으로서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도시화의 진전을 들고 있다. 1960-1980년의 20년간의 大分縣 인구이동을 조사해 본 결과 1980년 현재 거주인구의 38%는 縣 바깥의 다른 市町村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한 도시화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는 정보의 중심으로 인구의 집중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 전국의 공업도시의 인구증가율이 둔화 내지 감소하고 人口過疏地域의 감소율이 또한 둔화 내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지방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 도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인근 인구가 정보의 중심지로 자연히 흡인되기 때문에 지방의 町村에 강한 磁場을 가진 지방 산업을 육성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산업은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만드는 소규모 산업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농업특산품을 가공해 만드는, 말하자면 ‘1.5 產業’이라는 地場產業이어야 하고 이것이 곧 일촌일품 운동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둘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여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량생산 산업이 아니라, 에너지를 안 쓰거나, 아니면 조금만 쓰면서 보다 인간과 밀착된 소규모 산업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縣에서는 풍부한 温泉熱과 地熱을 이용한 농업기술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농업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지방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보다 자연적이며 인간적인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곧 일촌일품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된다.

세째의 배경으로는, 지역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에 의한 자립자조 정신이 그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촌일품 운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지역에는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성공적인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주적이고도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상의 세가지 배경이 平松知事が 일촌일품 운동을 제창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런 배경은 오오이파현의 사례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 일본 농촌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운동의 일반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은 도시부문의 팽창과 발달에 따라 위축되고 무력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서 나온 생존전략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형식과 접근방식은 극히 다양하다. 이제 우리는 현지조사의 사례를 통해서 그 각각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장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III. 오오야마 마찌(大山町)

1. 오오야마의 개황

오오야마 마찌(大分縣日田郡大山町)는 일본 큐슈(九州)지방의 동북부에 있는 오오이파현(大分縣)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북쪽으로는 히타(日田)시와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쿠마모토현(熊本縣)의 오구니 마찌(小國町)와 접하고 있어서 오오이파현의 가장 변방에 속하는 셈이다. 큐슈 전체로 본다면 오오야마는 중앙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오오야마의 총면적 45.64km² 중 80%(33.96km²)가 山林이고, 農耕地는 4.78km²에 불과하다. 1993년 1월 2일 현재, 총세대수는 1,049호, 총인구는 4,441명으로 나타나 있다.

오오야마의 인구구조 및 변동상황은 일본의 다른 농촌지역과 별다른 차이없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1991년 현재 총인구는 4,533명이지만 1960년만 하더라도 6,168명이나 되었다. 30년을 지나면서 인구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인구구조는 고령화되었다. 일본 국세조사 결과를 기초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을 단위로 인구구조를 표로 만든것을 보면 <표 14>와 같다.

농촌의 인구감소는 그 절대수의 감소보다는 노동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점이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오오야마의 총인구가 줄었다는 점과 함께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표 14〉 오오야마의 인구구조

〈구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총인구)	6,168	5,118	4,716	4,373
0-14세	2,276	1,350	1,033	896
15-64세	3,458	3,190	2,991	2,650
15-29세(a)	1,321	1,039	915	659
65세 이상(b)	434	578	692	827
(a)/총인구	21.4%	20.3%	19.4%	15.1%
(b)/총인구	7.6%	11.3%	14.7%	18.9%

자료：大山町, 過疎地域活性化計劃書(1992-1994).

수도 더욱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였다. 15세에서 65세까지의 노동인구도 1960년부터 30년간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중에서도 더욱 활동적인 노동인구 연령대인 15세에서 29세까지는 감소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이 30년 기간에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60년부터 30년간 전체인구 중 노동연령대(15세-29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4%에서 15.1%로 감소되었지만,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에서 18.9%로 현저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이런 인구변동의 추세는 오오야마의 초중등학교의 학생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91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오오야마의 국민학교 학생수가 414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65%가 감소한 것이다. 중학교 학생수의 감소도 마찬가지이다. 1991년 현재 209명인데 1970년에 비하면 약 50% 감소했다. 지금 오오야마에는 국민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있는데 집과 학교간의 거리가 4km 이상 떨어져 있는 국민학생이 전체의 14.2%, 6km 이상 떨어져 있는 중학생이 전체의 22.6%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이웃에 있던 학교가 폐교되었기 때문이다. 교사 1인당 아동수는 국민학교가 13.3명, 중학교는 14.4명으로서 전국 평균이나 오오야마의 평균보다도 낮은 편이다.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교사들이 오오야마보다는 日田市에 거주하면서 통근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젊은 부부의 자녀갖기를 원장하기 위하여 세째 이후의 자녀가 생겼을 때에는 그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1만엔씩의 보조금을 주고 있을 정도로 인구증가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고령화이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8.9%나 되고, 15-29세까지의 청소년인구 비율은 15.1%에 불과하다. 1960년의 통계에는 이것이 각각 7.0%와 21.4%로 나타났음을 볼 때 오오야마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진다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지난 30년간에 거의 2.5배나 늘어났다. 즉 65세 이상 고령자(827명)의 수는 오오야마의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을 합한 수(623명)보다도 많다.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보호, 각종 사업, 보건 및 의료 등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문인력 등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장래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단지 고령자들을 부양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이 생활자체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오오야마의 접근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의 노인들을 단순히 약자로 생각한다면 오오야마의 장래는 어둡다고 말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들을 인생의 원숙자로,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존재는 지역사회에 대단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망중한을 즐길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마련해주는 식의 종래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그들이 삶을 즐기고 창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야를 개발하였다.

공예관과 공방을 만들어 竹工藝와 機械織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노인들이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어울려서 비교적 힘이 덜 드는 작업을 함께 함으로써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노인들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노인을 좋아하는 사회(好老社會)」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공예품들은 농협직판장을 통해 판매되거나, 수요가 있는 다른 지방으로 출하된다. 그 밖에도 오오야마에는 노인들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老松莊」이라는 곳이 있어서 노인들의 사교장으로 또는 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일본 농촌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의 과소(過疏)현상을 살펴보자. 1960년도의 총인구 6,168명이 1993년의 4,441명으로 되었으니까 33년이 지나면서 인구는 28%나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오야마는 이렇게 인구가 대량으로 감소되고 있는 전형적인 과소지역(過疎地域)인 것이다. 1990년도의 통계로는 남녀의 성비는 91.9로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입률은 2.3%인데 반하여 전출률은 2.9%로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과소화(過疎化) 과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농촌지역의 인구의 흐름을 개괄하기 위해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통계를 <표 15>에서 10년 간격으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표 15> 오오야마의 인구변동

(년)	총수(인)	남자	여자	세대수(호)	평균 가족원수
1960	6,168	3,033	3,135	1,107	5.57
1970	5,118	2,465	2,653	1,069	4.79
1980	4,716	2,279	2,437	1,055	4.47
1990	4,542	2,170	2,372	1,051	4.32

오오야마의 인구는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부터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도부터 30년간 오오야마의 전체인구는 1,600명 이상 줄었다. 또한 전기간을 통틀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서, 남자가 농촌을 떠나는 확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농촌의 이촌현상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한가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세대수 그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1960년부터 30년간 오오야마 전체에서 단지 56세대(호)만이 감소했다는 점은 비록 그것이 농촌지역의 과소화현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는 상당한 정도의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은 평균 가족 원수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즉 1960년의 1가족 평균 5.57명에서 계속 감소되어 1990년에는 4.32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가족당 평균 1.25명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지난 30여년간 오오야마는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원중 일부가 도시로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들의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오오야마의 어디를 가도 도시로 떠나고 폐허가 된 채로 내버려둔 농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오야마의 농경지를 농가호수로 나누어 보면 농가호당 0.54 정보라는 극히 영세한 경지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의 오오야마를 회고하는 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쌀만으로 생활했던 사람은 이 오오야마에는 없었다. 2-3단보를 가지고 쌀농사를 지은 사람은 사정이 좋은 편이었고, 8단보에서 1정보를 가진 사람은 정말 몇집 밖에 없었다. 3단보를 가지고 있어도 2단보는自家消費이니까 1단보 밖에 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남자들은 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과 강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大山町 農協 1987: 10).

다른 소득활동이라고는 뚜렷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직 山林과 영세한 농토에만 의존해 온 옛날의 오오야마는 극히 빈한한 山村마을이었다. 1955년에는 인구 6,485명(1,098세대)이었지만 1975년에는 인구의 약 30%가 감소하여 4,701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 지역활성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소득이 향상되자 1983년에는 인구가 4,777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1993년 현재에는 다시 감소하여 4,441명(1,049세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오야마의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1970년까지는 1차산업 취업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 이후 성공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의 전개로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1990년 현재 37.8%를 나타내고 있다. 2차산업 종사자수는 1985년 이후 별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1990년 현재 26.6%를 점하고 있다. 3차산업 종사자수도 1980년 이후 별 큰 변동없이 1990년 현재 35.6%를 점하고 있다. 1990년도의 국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오야마에는 총취업인구가 2,303명이며, 이 중 34.4%는 히타시(日田市)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다른 市町村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의 직장은 대체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 3차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약 반수 이상이 오오야마 마찌 바깥에서 일하고 있다.

〈표 16〉 오오야마의 산업별 취업인구

〈구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취업인구	2,990	2,554	2,362	2,303
1차산업(%)	70.1	47.5	34.0	37.8
2차산업(%)	13.4	22.2	30.3	26.6
3차산업(%)	16.5	30.3	35.7	35.6

이렇게 본다면 오오야마 안에서의 산업별 취업인구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마찌 안에 있는 공장 및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수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고, 서비스 분야의 직업은 거의 무시되어도 좋을 만한 정도이다. 오오야마의 사람들은 서비스 분야의 어떤 수요가 있을 때에는 마찌의 중심부에서 차로 불과 15분내의 거리에 있는 히타시로 달려가기 때문에 3차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2. 지역활성화 운동의 시작

오오야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시작은 1961년 일본의 農業基本法의 제정과 시기를 같이 한다. 농경지가 극히 제한된 산촌인 오오야마는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耕種農業의 방식을 탈피하여 果樹栽培를 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바로 그해에 「NPC 운동」이라는 농업개혁운동을 제창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New Plum and Chestnuts의 약자에 해당한다. 즉 ‘새로운 梅實과 밤(栗)’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매화나무와 밤나무 심기 운동이다. 이 운동의 성공으로 1974년에는 이 두가지만의 實上高가 무려 1억엔에 이르게 되었고, 1988년에는 매실만의 매상고가 2억엔에 이르렀다. 1972년부터 도입된 팽이버섯(에노끼 버섯)이 이 마을의 主產物이 되면서 그 사업규모가 급성장하여 지금은 연간 16억엔의 매상고를 여기에서 올리고 있다.

오오야마 마찌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61년 일본에서는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운동을 제창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오야마의 경제적 성공이 일본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산촌 오오야마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야마다 하루미(矢幡治美)라는 한 농촌지도자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다. 1954년에 農協組合長에 당선되고 1955년에 오오야마 村長에 당선된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오오야마의 지역활성화 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야마다는 오오야마에서는 가장 부농에 속하는(4정보의 논농사) 집안에서 출생하여 국민학교를 마을에서 마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인근 도시에서 졸업하고 난 뒤 출곧 군

대생활을 해왔다. 終戰과 함께 귀향한 야하다는 家業으로 해내려오던 술공장 일을 거들면서 1951년에 새로 창설된 부락의 農業委員會의 회장일을 맡게 된다. 그 이후 30여년 간을 이 직책을 맡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야하다가 이 지역의 農業事情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矢幡治美 1988: 16).

2차대전 후 식량사정이 좋지 못한 일본은 전국농촌에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畜作農家の 自家消費用 이외의 쌀을 정부에서 일정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적 供出制度를 운영한다. 농업위원회는 해마다 가을의 作況을 조사하여 공출량을 정해주는 데 야하다는 오오야마라는 산간마을이 日照量이 부족하고 水溫도 낮아 反當 쌀 수확량이 36 킬로그램(6 가마)이라는 저조한 실적 밖에 올리지 못하여 농민들의 자가소비에도 부족한 딱한 사정에 충격을 받는다.

1954년 그가 농협조합장에 취임할 때의 조합의 재정상태는 극히 영세하였으며 조합의 부채가 70만엔이나 되었다. 그는 무엇으로 농협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36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매일 밤 순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농민생활의 어려움과 비과학적 영농 그리고 비위생적인 생활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하여 전력을 투입하여 무엇인가 오오야마를 위해 일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

그는 농협 저금이 5,000만엔이 되면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농민교육과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할 것이며 집집마다 전화를 설치하여 상호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선방송이란 것이 매우 새로웠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적극 호응하여 1957년에 저금고가 6,000만엔을 돌파한다. 그리하여 약속대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전화를 가설하게 되었다. 야하다는 이 유선방송 시설을 통해 매일 5분씩 「조합장의 시간」이란 프로를 가지고 오오야마의 농업과 마을 발전에 대하여 설득과 호소를 계속한다. 10년간 그는 이 프로를 담당하였다. 물론 다른 프로도 계속 실시하였다.

이러한 유선방송제도는 오오야마 농민들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의 오오야마의 기적을 낳게 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회고되고 있다(矢幡治美 1988: 23).

농협조합장에 취임한 다음해인 1955년 그는 오오야마 村長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다. 촌장선거가 너무 치열하여 입후보 취소를 결심했다가 수많은 후원자들의 강력한 출마권유로 결국 입후보하는데, 이때 그의 후원자들의 간곡한 출마권유는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촌장에 취임한 그는 일생을 오오야마를 위해 헌신할 각오를 새롭게 한다.

오오야마가 잘 살기 위해서는,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평균 5反의 농토와 山林만이 있는 이곳에서 농토만으로 소득을 향상시켜보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하다는 2, 3차산업의 높은 생산성을 본받아 농업을 어떻게 하든지 企業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農業企業化聯盟’이라는 것을 만들어 마을 청년들과 매주 한번씩 모여 밤 늦게까지 함께 토론과 연구를 거듭한다. 이 모임에서 그는 엄

격한 경영 및 소득분석을 통해 종래의 논밭 농사의 한계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有望代替 農業과 產業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高次元農業의 발굴, 높은 수익률의 저금운동, 싸게 사서 싸게 팔기, 경영수익의 마을발전사업에 이용, 휴가 갖기, 少量生產・多品種栽培, 소(牛) 안 기르기, 가벼운 노동하기 등 오오야마 농협의 기본운영방침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재래식 논과 밭의 농사를 과감히 버리고 作物의 收益性과 土地의 回轉率을 높이는 高次元農業을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단일 품목이 아닌 少量多品目生產에 의한 안정적인 생산, 농산물 가공을 통한 高附加價值의 이른바 「1.5차산업」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것은 농업생산이라는 1차산업과 이것을 가공해서 출하하는 2차산업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금도 오오야마 마씨 사무실 앞에는 세개의 조각이 서 있는데, 청년이 일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은 “일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학생이 책을 들고 있는 조각은 “배우고 싶은 소망”을, 아기를 안은 어머니 모습의 조각은 “사랑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곧 오오야마 주민 모두의 소망을 상징하며, 결국 야하다의 철학으로 승화시킨 오오야마 지역활성화 운동의 모토가 되고 있다. 위의 세가지 바람은 곧 ‘먹는 일’, ‘배우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되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기초 본능일 것이다. 야하다와 오오야마 촌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오오야마 지역활성화 운동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어왔다.

야하다는 오오야마에 적합한 경제성이 높은 작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市場과 주요 果樹園地를 순회하면서 엄밀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1961년에 오오야마地區 農業改良普及所의 소장으로 부임한 이케나가(池永千年)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 여행에서 두사람은 매실(梅實)과 밤(栗)이 오오야마의 사정으로 본다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3일간을 두사람이 같이 지내면서 연구를 거듭한다. 그들은 앞으로 일본인의 식생활에서 고단백질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카리성 과실인 梅實의 전망은 좋을 것이고 밤도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결론을 보았다.

이런 과수농업은 粗放栽培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점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용이하다는 점이 새로운 작목의 선정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매실의 수확기는 5-6월, 밤은 9-10월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이라는 쾌적한 계절에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실과 밤은 오오야마의 기후와 입지조건에 잘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오오야마의 산업을 전통시킬 새로운 작목을 선정하는 데 여러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그중에서도 작업량의 계절적인 분산과 출하시기를 연중 균형있게 조절하려는 노력에 높은 비중이 두어졌다고 오오야마의 지도자들은 술회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의 피크타임인 농번기가 어느 특정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노동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마치 도시 봉급생활자들의 월급과 같이 매월 안정적으로 농가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려고 노

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1년 가난에 짜들린 오오야마의 농가 소득증가 운동으로서 마침내 매화나무와 밤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제1차 NPC 운동」으로, 10년 후 농가당 평균 조수입 100만엔을 목표로 대대적인 村民運動이 전개되었다. 당시로 보아서는 과도한 목표였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오야마의 장래는 가능성이 없다는 신념을 확산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오야마에 매실농장 100정보와 밤농장 200정보 만들기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의지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3개 부락을 돌면서 住民會議를 개최하고 주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苗木代金의 3분의 2를 보조하고 農藥代는 3년간을 무료로 하였다. 동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先進地 見學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技術指導를 강화하였다. 야하다는 3년간 오오야마 마씨의 복지, 교육, 건설 부분의 예산을 전부 동결하도록 村議會의 동의를 얻고 나머지 예산을 전적으로 매실농장과 밤농장 만들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그리하여 초년도에 매실농장 약 25정보와 밤농장 약 10정보가 형성되었다. 1991년 현재 오오야마의 매실농장은 100정보의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고, 큐슈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매실농장으로 손꼽힌다.

“매실과 밤을 심어 하와이에 가자”라는 유명한 캐치프레이즈도 바로 제1차 NPC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왔다. 오오야마 농민들로서는 하와이 휴가여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에 야하다는 이러한 운동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실제로 제1차 하와이 여행단이 떠나게 된 것은 1966년 봄이었다(おおやま獨立國 1982: 44). 제1차 NPC 운동이 시작되고나서 20년이 지난 1982년까지 하와이를 다녀온 오오야마 농민은 전체 농협조합원 700명중에서 약 500명에 이른다. 하와이라는 곳을 택하게 된 것은 단순한 휴가여행에만 의무를 두기 보다는 해외견문을 넓혀 본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NPC 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1963년에 조직된 오오야마青年農業研究會였다고 한다(おおやま獨立國 1982: 62). 당시 20대의 농업후계자들은 야하다 조합장의 주창에 동조하여 논밭농사 대신에 솔선하여 매실과 밤을 심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야하다 조합장이 설립한 농업후계자 육영사업의 도움을 받아 농업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農業研究會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했던 사람은 農業改良普及所長이었던 이케나가였다. 농업개량보급소는 당시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지만 별로 활동이 없었던 4H 구락부를 재편성한 조직으로서, 매실과 밤은 장기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젊은이들에게 매실과 밤의 기술적인 재배법을 철저히 교육시켰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自力更生의 정신적 무장을 주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갔고 매화나무와 밤나무 심기 운동은 이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오오야마 농촌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경제개발 운동이 「제1차 NPC 운동」이었다면, 「제2차 NPC

운동」은 인간교육 및 인재양성을 겨냥한 ‘인간 만들기’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Neo Personality Combinati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역시 각 단어의 첫 글자인 NPC를 따왔다. 1965년부터 시행된 이 제2차 NPC 운동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살벌한 인간사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각기 풍부한 교양을 가지며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가 협동할 수 있는 인간들이 되어야만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요강에 의하면 제2차 NPC 운동의 목적은 “모든 주민이 공동운명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건강하고 밝은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격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おおやま獨立國 1982: 69). 또한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진정한 힘이 된다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오오야마에서는 ‘인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습관 만들기 학습’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1월1일의 拜賀式, 1월15일의 成人式, 2월11일의 建國記念日과 町村記念日, 2월의 하와이 여행, 3월의 就職者激勵會, 4월의 둘째 일요일에는 合同懇靈祭, 8월15일의 終戰記念日, 9월15일의 敬老日, 9월23일의 父親行事, 10월10일의 體育의 날, 11월3일의 感謝의 날, 12월의 ‘이웃돕기 운동’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일상생활과 습관에서부터 현대사회의 생활에 부합하고 이웃과 마을을 사랑하며 협동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인간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또한 이런 각종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의 체험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통합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사람들간의 연결고리가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인간 만들기’ 운동의 또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체험을 통한 학습’이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키부츠 학습여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9년 처음으로 3명의 오오야마 청년들이 4개월 예정으로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가서 노동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배우고 왔다. 이들 3명은 오오야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큰 기둥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그중에는 야하다 조합장의 아들로서 현재 町長으로 근무하고 있는 야하다 2세(矢幡欣治)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하다 2세는 그 당시 촌 사무소의 기획조사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협약한 자연조건과 사회조건 속에서 공동사회를 조직하여 생산에서 생활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키부츠 주민들의 경험은 협약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오오야마 청년들에게는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었다. 오오야마 청년들은 여기서 유태인의 철저한 근로정신, 협동정신, 애국정신, 교육정신을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 오오야마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는 이 첫 이스라엘 키부츠 연수여행이 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 세사람은 아직도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연수경험을 계기로 해마다 세계 각지역으로 연수나 시찰을 떠나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스라엘 연수도 계속되었지만 독일, 중국, 동남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등에 대한 시찰사업을 계속하면서 오오야마 청년들의 국제적인 체험과 견문을 넓혀 나갔고 오오야마 지역활성화 운동의 중심 일꾼들을 양성해 나갔다. 지금까지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왔고 장년층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중국의 인민공사를 여러번에 걸쳐 시찰한 바 있다. 30대와 40대의 주민으로서 이러한 연수와 시찰을 다녀온 사람은 이제 1,0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은 모두 지금도 오오야마의 農協組合이나 町事務所에서,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오오야마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다. 도시에 나가 있던 오오야마 출신의 청년들도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서 현재는 그 수가 100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수와 시찰사업을 통한 人才養成은 바로 제2차 NPC 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선진지역 견학사업도 진행시켰다. 경제건설과 소득향상 그리고 마을 발전은 바로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을 교육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육성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195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育英事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농촌경제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 고학력자는 더욱이 감소하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농협은 1957년부터 현재까지 學資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 100여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더러는 도시로 나갔지만 많은 젊은이가 오오야마의 각계에 남아서 부락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로 나간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 오리라 믿고 이 육영사업의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오야마가 성공하였다 하여 지금은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지만 오오야마의 오늘을 만드는 데 그 원동력이 되고 기둥과 뿌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고향마을에 남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고 야하다는 회고하고 있다(矢幡治美 1988: 107).

제2차 NPC 운동의 핵심적인 목표인 ‘인간 만들기’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유선방송이었다. 유선방송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이나 라디오에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농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즉 그들은 이런 매체들은 도시 사람들의 것이고, 농촌에서의 생활이나 생업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정보들로만 가득찼다는 생각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아예 자신들의 생업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만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등장한 유선방송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지역활성화 운동의 핵심에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우선 이를 통해 각종 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그 영향은 막대하였다. 유선방송을 통해 농업기술 교육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국내 및 국제 뉴스가 빨리 전달될 수 있었고, 오오야마 농민들이 바깥 세상을 알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

가 만들어졌다. 1987년부터는 有線 텔리비전 방송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농가와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NPC 운동은 다수의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 전체를 세계 속으로 끌어내고 활기찬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가능케하고 주민상호간의 정신적 유대를 공고하게 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1969년에 시작된 「제3차 NPC 운동」은 New Paradise Community를 이룩해낸다는 상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행되었다. 제1차 NPC 운동이 소득증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2차 NPC 운동이 '사람 만들기', 즉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3차 NPC 운동은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캠페인이었다.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생활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는 일이 없고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살기 좋은 농촌으로 가꾸자는 것이다.

바로 이해에 오오야마에는 町制가 시행되어 행정적으로 오오야마 마찌(大山町)로 되었다. 이상적인 농촌사회의 모델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구하여 마찌를 8개의 地團로 구분하고 각 단지마다 커뮤니티 센터를 두어, 이를 중심으로 文化集落團地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걸어서 15분 거리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이스라엘의 키부츠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이 센터에는 생활의 편의시설 뿐 아니라 문화의 集積團地가 되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마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행사가 이 단지를 핵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지는 상당한 정도의 자주성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에 못지 않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오락, 교육, 교양활동, 그리고 복지시설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고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3차 NPC 운동의 목표이다.

3. 농업부문의 성과

1971년에 町長을 그만둔 야하다는 농협조합에만 전념했다. 농협조합은 과수농업만으로는 오오야마의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보아,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작한다. 매실 꿀, 매실 잼 등 여러가지의 加工産業을 시작하고 이것이 힙파 소세지에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유기농법용 비료공장도 만들게 된다.

1987년에는 중국 蘇州 吳縣과 협작하여 매실과 꿀을 재료로 한 梅蜜 음료수를 개발했다. 매실단지인 그곳에 梅實 재배기술을 제공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梅蜜 음료수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오오야마는 이제 이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1992년 현재 오오야마 농협은 692명(683호)의 정조합원과 211명(208호)의 준조합원을 합하여 903명(891호)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1명의 임원과 71명의 직원을 가지고, 1991년 통계로 농산물 판매고 실적이 20억 6,211만엔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농협이 되었다. 이제 오오야마의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개괄해보기로 하자.

1961년에 제1차 NPC 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업진흥 사업에 따라서 소형 트랙터 10대

가 도입되었고, 그 해에 매화나무 9,000본과 밤나무 7,500본을 심은 것을 필두로 해마다 과수단지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것들이 자라서 4년 후인 1965년에는 매실 8톤과 밤 26톤을 후쿠오카와 북큐슈 지역으로 첫 출하하게 되었는 바 그 액수가 각기 193만엔과 572만엔이었다. 바로 그해에 제2차 NPC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이듬해인 1966년에는 매실 20톤과 밤 55톤을 수확하여 각기 455만엔과 1,006만엔의 실적을 올렸다. 이것이 1970년에는 매실 225톤과 밤 84톤에 각기 4,575만엔과 2,053만엔의 실적을 올리는 등 오오야마의 경제규모는 날로 팽창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오야마의 주민들은 소득증대 운동에 자신감을 갖게된 것 같다.

이렇게 소득이 증대되면서 제1차 NPC 운동의 초기에 내세웠던 “매화나무와 밤나무를 심어 하와이에 가자”는 슬로건이 1967년에 첫 결실을 보게되어 제1회 하와이 여행 단 제1진 16명이 하와이를 다녀오게 되면서 오오야마 사람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9년에는 차세대 지도자 3명을 선정하여 제1차 이스라엘 키부츠 연수단으로 파견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야하타 정장(町長)을 단장으로하는 12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유럽 농업 및 이스라엘 키부츠를 견학하고 왔다. 이때 이스라엘의 「메기드」라는 한 키부츠와 오오야마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키부츠는 오오야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그때까지 매실과 밤 생산이 농업분야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1973년에 들어서면서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된다. 매화나무가 동상해(凍霜害)를 입게 되면서 그 전해에 매실 226톤(4,356만엔)을 수확했던 것이 1972년에는 58톤(2,300만엔)으로 감소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봄과 가을에 수확되는 매실과 밤이 노동력도 분산시키고, 수입도 상당한 정도로 올려주었다는 이점은 있었지만, 자연재해에는 무력하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물색하던 중에 팽이버섯(エノキ)을 시설재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 계획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결국 1973년부터 팽이버섯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그 첫해에 46톤의 팽이버섯을 첫 출하하였고, 그 다음해인 1974년에는 팽이버섯 101톤을 생산하여 무려 6,290만엔의 소득을 올리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해에는 매실과 밤 생산도 좋아서 이 두가지를 합해 1억엔의 수입을 올렸고, 제2차 이스라엘 연수파견에도 3명을 보내게 되었다.

이 팽이버섯의 시설재배는 오오야마의 산업전반에 획기적인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이것은 사실상 농업생산이라기보다는 공업생산에 비유될 만한 것이다. 이 지역의 제재소에서 무진장으로 나오는 톱밥을 가공하여 그것을 플라스틱 병에 담고, 거기에 버섯균을 주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 가정의 인근 터발에 설치된 하우스에서 기술적으로 재배하여 출하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는 전과정이 수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어느 개인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1975년에는 오오야마의 농업협동조합이 팽이버섯 재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매년 오오야마 지역 전역에 수많은 분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서 시설재배를 확장시켜나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80년에 들어서는 팽이버섯만으로 이미 7억엔 매상을, 그리고 이어서 1982년에는 10억

엔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1983년 오오야마에는 팽이버섯 재배 1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 해에 팽이버섯은 11억 9천만엔의 매상을 올렸다. 다른 한편 제1차 NPC 운동의 중요한 작목이었던 매실과 밤(栗)은 이제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 앓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작목중에서 초기에는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밤은 오오야마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말았다. 1983년의 통계에도 이런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이 해의 매실은 1억 5천만엔 이상의 매상을 올렸지만, 밤은 2,332만엔에 그쳤다.

이와 같이 밤이 오오야마에서 사양길에 들어선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팽이버섯의 등장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후자의 요인과 관련해서 오오야마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밤이 한국 밤에게 졌다는 점을 스스로 없이 인정하고 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산지이용 계획의 하나로 밤나무 단지를 일구어 밤 생산이 국내의 수요를 훨씬 능가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마침내 수출 농산물 중 중요한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이것이 일본 오오야마의 밤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다.

이와같이 밤 생산이 국제경쟁력에서 약하고, 이를 개선할 만한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도달한 오오야마의 지도자들은 팽이버섯과 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농업생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대대로 가업을 이으면서 한가지 분야에만 매달리는 일본인의 직업관이 통하지 않았다. 밤나무로부터의 수입이 좋지 못하고, 또 좋아질 전망도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련없이 새로운 작목을 찾아나섰다. 이렇게하여 1991년도의 농산물 매상고 중 가장 높은 것 몇가지를 순서대로 본다면, 팽이버섯(11억 6천만엔), 매실(1억6천만엔), 나메코(1억4천만엔), 오얏(1억2천만엔), 크렛송(8천만엔), 허브類(다양한 약초들로 조제한 茶; 6천만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작목이 다 오오야마의 농업부문에 새로이 등장한 작목들이다. 초기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밤은 한때 팽이버섯이 첫 출하되던 해인 1973년에 226톤 생산에 3,320만엔의 매상을 올린 적도 있었지만, 1991년의 통계에는 7.5톤 생산에 매상이 392만엔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작목인 쌀은 13톤 생산에 매상액 364만엔에 불과했다.

1988년에는 오오야마의 농산물 총 판매액이 20억엔을 넘었고, 이곳 사람들이 ‘푸른 다이아몬드’라 부르고 있는 매실은 그 해에 판매액 2억엔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1988년 아래로 오오야마의 농산물 매상실적은 매년 20억엔 이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991년 현재 농산물 이외의 각종 가공품을 비롯한 涉外事業取扱高가 4억 8,254만엔, 그리고 製造部門(가공)取扱高가 4억 1,698만엔에 이르고 있다. 위의 세가지 종류의 판매실적이 1991년 현재 약 30억엔에 달하고 있다.

오오야마 농협은 1991년 현재 농협의 長期共劑 保有高는 호당 4,909만엔, 貯金高 약 45억엔을 보유하고 있는 맘모스 농협이다. 오오야마 농협은 지금 농협본관(사무소와 종합공회당), 저온창고, 일반창고, 選果場, 팽이버섯 菌培養 시험장, 6개의 팽이버섯 관련

공장, 가공공장, 냉동창고, 비료공장 2개, 현대식 농산 가공품 直販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오야마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뚜렷하게 달라진 것 중에 두가지를 든다면 제2차 NPC 운동이 치중하던 ‘사람만들기’, 즉 인재양성의 측면과 제3차 NPC 운동이 치중한 ‘환경개선 및 사회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매기드 키부츠와 자매결연을 맺고, 오오야마의 앞날을 이끌어 나갈 젊은 후계자들을 장기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 이미 여러 차례 계속되었고, 이에 추가하여 일선의 농촌 지도자들로 구성된 단기 시찰단도 여러 차례 조직되어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의 농업경영 현장을 직접 견학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오오야마의 경제적인 성공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산물 총판매고가 처음으로 20억엔을 돌파하던 1988년에는 오오야마의 町長을 포함하여 18명이 이스라엘 건국 40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오오야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제14회 上海, 蘇州, 吳縣, 北京 友好訪中團이 중국을 견학하고 왔다는 것으로 보아 오오야마 주민들의 시야는 넓어져서 가히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겠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오오야마의 한 지도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의 예는 그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즉 매실로 담그는 일본 전통 음식인 ‘우메보시’는 이제 오오야마의 특산물 중의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지방 특산의 매실을 중국 上海 교외의 한 농촌으로 보내서 ‘우메보시’를 담아 장기 저장한다. 이것을 20년 후에 일본으로 다시 가져와서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인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오야마의 신용과 명예를 걸고 이 ‘우메보시’를 담글 때 이미 20년 후 미래의 소비자들로부터 일부의 돈을 미리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수백년 묵은 ‘우메보시’를 마치 금덩어리 같이 귀하게 여기는 일본 인들에게 20년 묵은 ‘우메보시’, 그것도 중국에서 장기 저장되어 숙성된 음식물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으로 봐서 안정된 사회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거래가 지역활성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생활의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오오야마 전 역을 여덟개의 ‘地域文化集積團地’로 나누어 그 각각에 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공민관, 수영장, 운동광장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들을 차차 건설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오오야마는 현(縣)내의 다른 지역사회(市町村)에 비하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취락이 여기저기 넓게 흩어져 있기에 전체가 하나로 기능하게 하기는 어려운 지역적, 환경적인 조건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면서 인접해있는 취락들을 묶어서 생활단위를 형성하게끔 시도한 것이 이 ‘地域文化集積團地’ 개념이었다.

그 밖에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택을 건설하고, 관내 학교의 교사를 개축하며, 학교급식센터를 건설하고, 운동광장을 정비하는 등의 수많은 기반시설확충계획이 실천에 옮

겨졌다. 또한 「오오야마 유선 텔리비전」(OYT)의 개국(1987년)과 농협 직판소 「고노하나 가루텐」(木の花 Garten)의 신축 및 개점(1990년)은 지역활성화 운동의 중요한 결실이요 또한 새로운 축진제가 되었다. 유선 텔리비전은 정보의 확산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작을 넓혀주고 국제적인 감각을 길러주었다는 점에서 주민생활에 획기적인 변수로 추가된 항목이었다. 또한 직판소의 설치는 오오야마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오오야마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도로(212호선)는 이 지방의 주요한 간선도로로 손꼽힌다. 즉 후꾸오까에서 그리고 오오이따시에서 히타를 거쳐서 쿠마모토현의 유명한 스이타온천(杖立温泉), 그리고 이름난 관광지로 활화산인 阿蘇山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도로이다. 연간 200만명이 아소산으로 향해 이 도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오야마는 바로 이 통과여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비지네스를 겨냥하면서 직판장을 이 간선도로변에 세웠다. 한개의 건물만으로 레스토랑 겸 직판장으로 사용하였으나, 1992년에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서 1층은 직판장 그리고 지하는 우메보시 박물관 성격의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다. 또 기존의 건물은 레스토랑 전용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간선도로변에 널찍한 주차장을 가진 이 직판장은 예술적인 건축양식과 함께 통과여객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지금은 오오야마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해마다 국내외의 견학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약간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1984년까지 732개의 단체로부터 13,340명이 오오야마를 시찰 또는 견학하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오야마가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오야마 지역활성화 운동의 성공은 어느 한가지의 요인으로만 풀릴 수 없는 것이고, 수많은 요인들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일 것 같다. 그러나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수많은 요인들을 한데 모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야하다라는 지도자가 수행한 역할은 오오야마 마씨의 역사에서 뚜렷하게 기록될 것이다. 경제적인 생산조건이 극히 불리한 극단적인 빈곤이 야하다의 지도력과 결합하여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이다. 또한 오오야마가 청년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自力更生을 할 수 있도록 人才養成과 住民教育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4. 지방행정과 주민생활

오오야마 마씨 행정부의 기구는 현재 6課 2室로서 5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외도 교육위원회에 9명, 의회사무국에 2명, 광역사업에 1명,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5명이 파견되어 있어 실제로는 총 76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마씨사무소(大山町役場)는 總務課(14명), 企劃課(6명), 稅務課(4명), 住民課(11명), 產業課(10명), 建設課(7명), 殴對

策室(3명), 出納室(4명)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町長이 있는데 그는 임기 4년의 선거로 당선된다. 町長 밑에 관료출신의 보좌역으로 助役이 있다. 이 외에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町議會)가 있는데, 의원들은 모두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교육위원회 위원(5명)과 농업위원회 위원(12명)들도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오오야마의 일반회계년도별 결산 상황에 의한 1991년도 歲入현황을 보면, 일반재원, 국고지원, 縣지원, 지방채, 기타로 구성되는 세입총액이 약 27억엔, 그리고 歲出에서는 의무적 경비, 투자적 경비, 기타로 구성되는 세출총액이 약 26억엔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 사업, 노인보건 사업, 템대책 사업, 정보센터 사업, 간이수도 사업 등에 약 8억엔이 투입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세출에 있어서 의무적 경비보다 투자적 경비가 더 많다는 점이다.

오오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오야마의 농가 총수가 90년 현재 641호로서 전체 세대의 61.3%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취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도 현재 농산물관계 일년간 판매고가 약 30억엔 이르는 등 오오야마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다. 농산물 판매 실적에서 팽이버섯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농산물 생산의 다각화와 가공산업의 발전이 오오야마 행정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1990년도의 일본 國民白書에 의하면 일본 전국의 전체 세대 家計消費支出 일년 평균이 373만엔이라고 조사되어 있는데 그 평균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70%의 소득율을 가진 농산물 일년간 판매액을, 전업농가의 경우 가구당 적어도 500만엔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오야마의 농업생산소득을 이 정도로 유지시키고 앞으로의 농업소득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이 오오야마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오오야마는 현재 37개의 地區(자연취락)와 8개의 團地로 구성되어 있다. 37개의 自然聚落을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끼리 묶어 평균 인구 500명 정도의 8개의 센터로 묶

〈표 17〉 오오야마의 地域文化集積團地別 주요 시설

	콤뮤니티 센타	공민관	수영장	운동광장
1. 北部團地	1	2	2	1
2. 都築團地	1	4	1	2
3. 老松團地	1	1	1	1
4. 西部團地	1	4	1	1
5. 中央團地	0	6	2	0
6. 烏宿團地	1	2	3	1
7. 清流團地	1	5	4	1
8. 南部團地	1	2	2	2

어 생산, 문화, 인보, 사회복지, 사회교육, 보건 및 체육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각 단지에는 콤뮤니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독립건물을 확보하고 있다. 콤뮤니티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역의 주민회의에서 선출된다. 단지별 각종 모임과 활동은 콤뮤니티 센터에서 벌어진다. 오오야마의 8개의 단지 각각에 어떤 시설들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개략해보기로 하자.

단지별 시설현황을 보면 中央團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지가 1개의 콤뮤니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자연취락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여러개의 공민관, 수영장 및 운동광장을 가지고 있다. 中央團地의 경우에는 老松團地와 함께 오오야마 마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콤뮤니티 센터와 운동광장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오야마의 행정사무소(役場)와 농협, 병원, 우체국, 은행 등 각종의 기관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 여기에 위치한 문화시설들은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콤뮤니티 센터보다는 규모가 작은 공민관은 각 단지 내에 있는 자연취락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시설은 각종의 회의들이 열리고, 사회교육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비록 오오야마가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씨의 중심지역이 변두리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의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지형이 산악지역이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민관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콤뮤니티 센터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정보화 네트워크가 役場의 정보센타와 연결되어 있어서 오오야마 전체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37개의 각 취락에는 區長(한국의 班長)이라는 선출된 임원이 있어 취락의 모든 문제를 마씨 행정당국인 役場과의 상호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다. 평균 4-5개의 자연취락이 협동하여 광역단위의 콤뮤니티 센터를 구성하고 별도의 위원장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말단조직의 광역화개편은 날로 변화하는 취락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방의 행정, 복지, 교육, 인보의 중심역할을 취락보다는 보다 큰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지방행정 당국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보다 확대된 자율적인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구의 고령화로 消防隊를 각 취락마다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인근 취락과의 공동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행정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복지시설을 부탁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8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동력 관리와 생산조직으로서도 과소화의 경향에 따라 취락보다는 센터가 유리하게 된 것이다. 8개 단지중의 하나인 南部團地의 콤뮤니티 위원회 회의를 우리들이 직접 참관하여 보았을 때도 3개 취락의 각 가구대표 25명이 모여 콤뮤니티 위원장 사회로 마을 앞의 하천 미화작업과 도로확장에 따르는 공동작업계획을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다. 마씨 사무소의 건설과 직원 2명이 입회하고 인근 마씨의 행정직원도 참관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열띤 논의를 거쳐 南部環境整備策定委員會라는 조직을 탄생시키고 하천정비, 땅주변 환경정

비, 도로정비 등을 서로 분담하여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37개의 각 취락에는 區長 책임하에 행정을 보조하는 각종 모임과 취락주민의 각종 자율적인 모임이 열리고, 취락단위의 사교, 교양, 생산, 교육,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다. 예를 들면 37개 취락중 가장 작은 취락인 누꾸미(貫見)취락은 8개의 단지중 남부단지 콤뮤니티에 속해 있는데 30세대 인구 127명이 있다. 누꾸미 취락에는 다음과 같은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매월 15일에 모이는 30-40대 남자들의 친목모임, 40대 이상의 남자 원로들이 모이는 도개바라우會(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는 뜻의 지방어), 매월 10일에 모이는 50대 남자의 친목모임, 마을제사(마쓰리)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모임,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를 보면, 신생아 이상 중학생의 부모들이 모이는 母親會(아버지도 함께 참여), 여행을 하기 위해 모이는 35-50세의 다노모시(契), 그리고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피티에이(P.T.A.) 모임, 농협의 각종 모임, 마찌 단위의 각종 부인회 모임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모임이 있을 때는 보통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으며 상식과 교양 그리고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오오야마에는 1970년도부터 풍부한 마음, 풍부한 지식, 풍부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生活學園을 개설해 오고 있다. 각종 강좌의 개설, 청소년 해외파견사업, 각종 사회교육행사의 추진 등을 통해 오오야마의 발전에 필요한 자발적인 역량을 키워왔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소규모 회의실, 요리실, 숙박실 등을 갖춘 멋진 公民館을 가지고 이를 교육위원회의 社會教育係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있다. 1992년도 생활학원 학생모집 현황을 보면 生花 교실, 무용 교실, 민요 교실, 三昧線 교실, 書道 교실, 講曲 교실, 珠算 교실, 꽃꽂이 교실, 시조 교실, 컴퓨터 교실 등이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개설되어 있고 월회비는 1,000엔씩이다. 그리고 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발표회도 갖는다. 1991년도에 13개 학급을 개설했고 225명의 주민들이 강습을 받았다고 한다. 또 매년 3명의 짚은이를 선발하여 이스라엘 키부츠에 연수 생을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마찌에서는 사회교육예산으로 매년 약 5,000만엔, 공민관 활동비로 약 900만엔, 문화강좌 개설 비용으로 약 800만엔을 투입하고 있다.

오오야마에는 체력만들기 町民會議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모토로 할 뿐 아니라 식생활과 영양, 생활개선, 보건, 환경개선, 문화생활 등 종합적인 생활향상 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마찌가 주관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실내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보트 경기장 등을 갖추고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교육위원회로서 일년에 약 3,800만엔의 예산을 사회체육활동에 쓰고 있으며 체육관장 외에 23명의 社會體育士가 사회체육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 외에도 부락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그리고 문화생활의 일환으로 음악연주회, 연극, 강연회 등을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오오야마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町役場을 제외하면 주민생활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農協이다. 총세대 1,046호 중 1991년도 현재 정조합원 683호와 준조합

원 211명을 포옹하고 있는 농협은 오오야마의 가장 큰 산업인 농업관련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2차대전 후인 1948년에 창립된 농협은 야하다(矢幡)조합장에 의하여 1961년부터 시작된 NPC 운동으로 오오야마 빈곤탈피 운동을 시작한다. 1991년 현재 71명의 임원과 직원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 약 20억엔, 가공품 판매 약 4억엔, 섭외사업 취급고 약 5억엔, 저금과 대부금 취급액 약 45억엔, 장기 공제 호당 보유고 약 5,000만엔이라는 맘모스 농협으로 성장하였다. 농협은 2개의 지소, 가공공장 6개, 가공 창고 2동, 選果場 1개, 냉동고, 퇴비공장 2개, 슈퍼 1개, 직판장 1개, 자동차 공장 1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 휴식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장년부와 부녀회가 각종 조직과 作目班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후꾸오카(福岡市)에 직판점을 하나 더 개설하였다. 농협은 개발부, 문화부, 섭외부, 경제부, 제조부, 금융부, 지소, 관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각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발하였다.

5. 지역정보화 사업의 전개

오오야마의 또 하나 특색있는 사업은 有線 텔리비전 방송국 운영이다. OYT로 알려진 이 방송국은 ‘오오야마 유선 텔리비전’(Oyama Yusen Television)의 영문 약자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주민들은 영문으로 ‘우리들의 유선 텔리비전’(Oretachino Yusen Television)의 약자라고들 하기도 한다. 사실 이 OYT는 오오야마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하고, 일본 전국적으로도 지역활성화 운동을 뒷받침한 성공적인 결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86년에 유선 텔리비전 방송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1987년에 본방송을 개시한 OYT는 “우리마을의 정보는 우리들의 텔리비전으로 보고 싶다”는 주민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텔리비전과 케이블 텔리비전을 접합시킨 이 방송국은 자체의 방송제작 시설을 갖추고 마을의 모든 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각 가정에 매일 매일 방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뉴스를 일본 전국에 방송할 수도 있고 위성과 연결하여 세계 각국의 뉴스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 도로, 학교,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근간이 되는 시설들과는 달리 ‘정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이 지역에 OYT가 개국한 이래로 정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역에 밀착한 정보가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에 여러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텔리비전을 통해서 접했던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모두 남의 것들이었지만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보를 자신들의 텔리비전으로 그날그날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즐거움이었다. 알고 싶은 것을 물었을 때에 비로소 대답해주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만한 것들을 미리 보도해주는 자세가 OYT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한다. 마찌 전체가 스튜디오가 되고, 전체 주민들이 주역이 되는 이것이 바로 농촌형의 CA TV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 오오야마 사람들의 자부심이다. 주민들은 매일매일 오오야마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화제의 인물들도 모두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더욱 실감나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언뜻 보아서는 OYT와 같은 유선 텔리비전은 단지 여가를 즐기는 수단으로, 또는 주민들의 이른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현대문명의 이기로만 이해될지도 모른다. 농업 및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농지의 기본정비, 농기계 및 공동이용시설의 도입과 정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의 사업이 중심이라고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농업 및 농촌의 진흥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 처리하여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 오오야마의 지도자들은 이 OYT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어떤 설비들을 갖추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개괄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오야마 유선 텔리비전’(OYT)은 12개의 텔리비전 채널과 2개의 FM방송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텔리비전의 경우 5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NHK總合, NHK教育, NHK衛星第1, NHK衛星第2, 每日放送), 5개의 지방방송(테레비大分, 후쿠오카放送, 테레비西日本, 大分放送, 큐슈朝日放送), 그리고 2개의 자체방송(自主放送, 自主氣象放送) 채널을 가지고 있고, 라디오는 2개의 FM방송(FM후쿠오카, NHK-FM)을 내보내고 있다.

「自主放送」은 지역에 밀착한 뉴스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이다. OYT의 방송 센터는 오오야마의 마찌사무소(役場) 내에 설치되어 있고, 스튜디오와 조정실을 갖추고 있다. 방송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지조사 시점인 1993년 2월의 경우 아침 6시40분부터 밤 12시경까지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간대에 계속해서 방송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하는 시간만이 일정하고 혹시 짧은 것이라면 다음 시간대까지 방송이 중단된다. 예컨대 OYT가 자체 제작한 뉴스인 「뉴스WIND」는 6:40, 12:20, 18:30, 21:00, 23:30분에 하루 다섯번 방송된다. 이 중 첫 두번은 어제 만들어진 뉴스를 재방송하는 것이고, 그날 만들어진 뉴스는 오후 6시 반에 첫 방송후에 두번 재방송된다. 이 사이에 13:00, 19:00, 21:30분 등 세번에 걸쳐서 자체 제작되었거나 또는 외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일요일에는 이 시간대에 지난 일주일의 뉴스를 종합한 「뉴스 위크리(News Weekly)」를 제작하여 방송한다.

참고로 뉴스 이외에 OYT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1993년 2월의 방송 스케줄에서 몇가지만을 열거해보자. 「패션쇼: 제8회 農協부인회의 모임으로부터」, 「치박코 스모 20주년 기념대회로부터: 개인전」, 「히타군 중학교 음악제」,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日本廣報協會 제공)」, 「長壽사회: 풍요로운 노후를((日本廣報協會 제공))」, 「인형극: 피노키오」, 「점검 오오야마: 쌀 문제를 생각한다」, 「교육좌담회: “중학교생활을 회고한다”」 등 거의 대부분이 OYT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고,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 중 주민들이 직접 가보지 않아서 궁금해할 만한 것이나, 알아두는 것이 좋을 만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취지로 편성되어 있다. 또 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 와트슨씨가 영어 회화를 강의하는 프로그램 「와트슨의 즐거운 英會話」가 여기에 추가되어 매주 이틀간 방영되고 있다.

「自主放送」은 또한 준비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을 화상정보의 형식으로 알린다. 현지조사 중 1993년 2월 16일에 「自主放送」의 ‘알림’ 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 급식센타의 임시조리원 모집(40세 이하의 건강한 여성 1명)
- * 야간당번 醫院 리스트(일자별 당번의원의 전화번호)
- * 일요일 및 祝日 當番醫(2월분 일자별 당번의 전화번호)
- * 호적수수료 변경에 관한 알림(役場戶籍課)
- * 歯科醫 일요일 당번표
- * 주간 일기예보(大分縣 전역)
- * 각종 증명 발행을 위한 창구 연장 업무(役場住民課;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 * 농협 選果場 출하 휴일 안내(2월분)
- * 농산물 시장가격 정보(당일 출하분; 등급별 가격)

이런 정보는 모두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격과 같이 농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방송센타가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 「自主放送」을 통해 전해줌으로써 OYT는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톡톡이 한 끗을 해내고 있다. 役場이나 農協과 같은 주요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만한 사항들은 즉각적으로 이 「自主放送」을 통해 전함으로써 사실상 OYT는 오오야마를 하나의 가족 또는 하나의 사회단위로 묶는 데 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겠다.

役場의 방송센타의 스튜디오 외에도 농협에 「農協 서브센타(Sub-Center)」라고 부르는 간이 스튜디오 및 告知放送 설비를 두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光케이블의 쌍방향 회선을 이용하여 방송센타를 통해서, 농협이 독자로 수집한 정보나 농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내보내든가 또는 告知放送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농협 외에도 쌍방향의 간선은 문화회관, 학교, 공공시설 등 오오야마 내의 주요 기관 22개소를 연결하고 있어서 방송의 중계나 데이터를 방송센타로 전송하여 결국 전체가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혹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곳이나 악조건 하에서 중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상과 음성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중계차도 확보하고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방송시설 및 설비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自主氣象放送」 채널의 내용을 보자. 이것은 일상생활과 생업에 관련있는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방송을 위한 정보는 오오야마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끔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시설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화상정보의 형식으로 각 수상기에 전달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센타, 大久保臺, 都築, 南部 등 각 지역별로 몇시 현재의 풍향, 풍속, 기온, 습도, 地中(온도), 地表(온도), 기압, 우량 등 8가지의 정보를 제시하고, 풍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의 상태

가 이전과 비교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변동이 없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 농사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싣고 있다.

이러한 자주방송 외에도 OYT는 산악지역으로서의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방면으로부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위성방송 2개를 포함하여 10개의 텔리비전 방송과 2개의 FM 라디오 방송을 받아서 재송신하고 있다.

오오야마의 유선방송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텔리비전과 라디오 방송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OYT는 텔리비전 채널을 이용하여 PCM화된 告知放送 및 디지털 데이터를 고품질, 고신뢰성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를 수신하기 위한 단말기(PANACATS) 1,168대가 각 가입자에게 공급되어 있고, 또 여기에 추가하여 영상이나 음성으로는 충분히 전할 수 없는 정보를 활자나 그림으로 받을 수 있는 문서 전달용 프린터가 각 區長과 農事主事 댁에 92대가 설치되어 있다. 고지방송 단말기는 연락방송이나 긴급방송을 음성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 가입자가 단말기를 켜지 않아도 방송센타에서 각 가입자의 단말기를 켜서 음성으로 알릴 수 있게, 대규모의 재해를 맞았을 때 긴급 경보방송을 내보내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마찌 내의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군데군데 옥외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告知放送을 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보를 알려준다. 이 외에도 가입자는 이 단말기를 통해 음악방송을 즐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OYT의 씨스템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防霜선풍기'이다. 이 지역에는 때로는 서리가 심하게 내려 농작물이 심하게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단지에 '防霜선풍기'를 군데군데 설치해 놓고, 농업기상관측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기계적으로 분석되어 필요한 때에는 서리경보를 내리고 이 선풍기들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서 서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를 통해서 작물의 수확량을 높히는 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OYT의 매월 시청료는 1,300엔이며 현재 마찌 내의 거의 모든 세대가 가입되어 있다. 오오야마 주민은 정보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개방된 정보로 마을이 한층 번영하고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오오야마는 실제로 지역방송과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첨단을 걷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이 방송을 중심으로 동질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생활의 구심점을 쉽게 형성하고 있다.

IV. 오구니 마찌(小國町)

1. 오구니의 地域活性化 운동

일본 自治省은 1989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活力있는 마찌 만들기」 운동의 최우수 地方公共團體로서 전국에서 13개의 町村을 선발하였는데, 그중에 쿠마모토현의 오구니 마찌(熊本縣阿蘇郡小國町)가 포함되었다. 오구니는 풍부한 森林자원과 地熱 등 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삼나무의 고향 만들기」(悠木の里づくり) 운동을 1984년부터 시작하

면서 유명하게 되었다. 오구니의 삼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든 버스 터미널 「유우 스테이션」, 그리고 이곳 출신의 유명한 細菌學者 키타사또(北里紫三郎)박사를 기념하여 만든 다목적 건물인 「木魂館」, 木造建物로서는 일본 최대의 町民體育館 「오구니 둠」, 큐슈지방에서는 오구니에만 있는 저어지(Jersey)種의 젖소에서 나온 버터와 치즈, 검은 돼지 햄 등의 특산품,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을 위한 「오구니 未來塾」의 운영 등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본 큐슈지방의 최대의 관광지대인 阿蘇 九重國立自然公園에서 20여 킬로미터 북쪽으로 떨어진 오구니 마찌(小國町)는 옛날부터 조그마한 山間溫泉지역으로 지금도 6개의 소규모 온천을 가지고 있는 農山村이다. 오구니는 쿠마모또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우리의 또 다른 연구대상지역인 오오이파현의 오오야마 마찌(大山町)와 접해 있다. 큐슈 전체로 본다면 오구니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쿠마모또 현청이 위치한 쿠마모또시로부터는 약 70킬로미터 거리로 자동차로 약 1시간반, 그리고 후쿠오카시로부터는 130킬로미터에 자동차로 2시간이 약간 더 걸릴 정도로 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전형적인 산간촌이 지난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지역활성화 운동」의 물결을 타고 거대한 탈바꿈을 해왔다.

오구니의 지형은 기복이 심하고, 또 기상의 변화도 심한 편이다. 연간 강수량은 2,200mm에서 2,400mm 정도로 많아서 林業에 적절한 곳으로 일본에서도 이름난 임업지대이다. 이곳에는 특히 삼나무(杉)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오구니 스기」(小國杉)라면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양질의 목재로 손꼽힐 정도여서 이것이 이 지역의 지역활성화 운동에 상징적인 자원이 되었다.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은 우선 이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살리고 문화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오구니 마찌는 지역활성화 운동의 상징으로 「유끼의 고향」(悠木の里; Yukino sato)을 창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悠久한 연륜을 가진 小國杉', '悠然한 자연', '悠悠히 솟아오르고 있는 온천수' 등이 오구니의 주요 자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 머릿자인 「悠」字를 따서 「유끼(悠木)의 고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구니 마찌에 지역활성화 운동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5년경이었다. 사실은 이보다 2년 전에 오구니 출신의 미야자끼 노부토시(宮崎暢俊)씨가 町長에 취임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취임 당시 41세의 젊은 지방지도자로 고향인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에 활력소를 집어넣기에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미야자끼씨는 후쿠오카의 큐슈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로 1971년에는 오구니 마찌의 의회의원이 되었고, 8년만에 의회의장에 선출되어 4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선봉에서 일하던 중 町長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지역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생산만을 가지고 농촌이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데 착안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문화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찌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방면으로 마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자원을 한데 모았다.

오구니의 지역활성화는 접근방식 그 자체에서부터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구니의 접근방식은 단순한 과학적 농업경영이 아니라 오구니의 산업, 경제, 문화, 교육, 생활 등 오구니의 전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하나의 문화산업 혹은 이벤트 산업 그리고 디자인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즉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은 벌써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는 새로운 문화적인 부가가치를 가진 '소프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야자끼 町長을 비롯한 오구니의 지도자들은 창의적인 소프트 산업으로 승부를 건다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우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오구니 마씨도 특히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그리 매력적인 곳이 되지는 못했다. 일본의 다른 어느 농산촌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구의 過疏현상은 분명했다. 국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구니 마씨는 197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90년에는 인구가 87.8%, 세대수는 95.5%로 감소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표 18〉 참조). 5년을 단위로하여 잡은 통계에 의하면 오구니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대수에 있어서는 감소의 경향이 비교적 완만하다. 그 이유는 평균가족원수의 차에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15년간에 평균가족원수가 3.82

〈표 18〉 오구니의 인구 및 세대수 추이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인구	11,228명 100.0%	10,813명 96.3%	10,464명 93.2%	9,854명 87.8%
세대수	2,942호 100.0%	2,930호 99.6%	2,861호 97.2%	2,809호 95.5%
평균가족원수	3.82명	3.83명	3.66명	3.65명

명에서 3.65명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곧 완전히 오구니를 떠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자녀를 도시로 내보낸다든가 또는 가족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직업을 찾아 떠나는 식으로해서 평균가족원수가 줄어든 결과라고 생각된다.

취업별 인구 추이(〈표 19〉 참조)에서는 오구니 마씨가 변해온 모습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이것은 1차산업의 비중이 약화된 반면에 2차 및 3차산업이 전체 노동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막강하게 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가 있다. 1975년도 까지도 산업별 취업인구가 1차산업에 40.3%나 집중되어 있었지만 1990년에는 29.1%로 까지 감소하여 그간의 변화가 얼마나 극심하였나를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1차산업 인구의 감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농산촌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전

〈표 19〉 오구니의 취업별 인구 추이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제1차산업	2,123명 40.3%	1,995명 36.6%	1,662명 32.0%	1,500명 29.1%
제2차산업	824명 15.6	1,091명 20.0%	1,123명 21.6%	1,200명 23.3%
제3차산업	2,327명 44.1%	2,353명 43.4%	2,411명 46.4%	2,450명 47.6%
합 계	5,274명 100.0%	5,439명 100.0%	5,196명 100.0%	5,150명 100.0%

체 인구 중에서 노동인구의 총수에서는 이 15년 기간에 124명의 감소만을 보이고 있지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623명이나 줄었고 2, 3차산업 부문에서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로써 오구니에는 이제 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반수에 육박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한갓 산간촌이었던 오구니에 이제 도시형의 소프트 산업이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산촌에는 자연이 있고, 인정도 풍성하며, 시골맛 나는 음식도 있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에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닐까? 그것은 역시 아무리 농산촌에서의 생활이지만 거기에는 都市性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변화있고 재미있는 고장(町)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오구니는 바로 이런 길을 선택했다. 역시 경제를 살리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할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2. 지역활성화 운동의 개략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특색은 새로운 디자인 산업과 각종 이벤트 산업을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어들여 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존 온천지대를 새로이 발전시키고 시가지를 정비하며 꽤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지역으로 만들고, 특색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많은 애호가를 확보하는 것이다.

오구니 마씨(小國町) 지역활성화 운동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지난 10년 간에 오구니가 탈바꿈한 역사는 산업구조, 사회구조, 의식개혁 등 생활양식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마치 지진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우선 오구니의 그간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주요 일지를 개략해 보기로 하자.

1983: 미야자끼(宮崎暢俊)町長 취임

1985: 「手제품 제작館」(특산품 개발 시설) 개관
 「스기토피아 오구니 祝祭」(町民참가 이벤트) 개최
 「오구니 미술 훼스티발」 개최
 「오구니 가축 市場」(木造) 완성

1986: 『유끼노 사또(悠木の里) 만들기 시나리오』(제1차) 채정
 「悠木産業(株)」(제3섹타) 설립
 오구니 삼나무를 이용한 모텔하우스 전시
 「오구니 未來塾」 개설
 농업용 유리 하우스(地熱이용 재배시설) 완성
 「전국 산촌지역진흥 심포지움」 개최

1987: 「배움의 고향」(學びやの里) 구상 발표
 「유우(悠) 스테이션」(교통센타 겸 특산품 판매시설) 개관
 「임업 종합 센타」(木造) 완성
 「北里紫三郎 記念館」 개관
 「유제품 가공 센타」(치즈, 버터 가공시설) 완성

1988: 「小國學園 複合施設」(공립으로는 처음으로 정신박약자 시설 병설) 완성
 「오구니 둠」(小國ド-ム)(町民체육관) 개관
 「物産館」(일명 「파라밋또」; 특산물 판매 및 레스토랑) 개관
 여성 세미나 개최
 「木魂館」(연수 및 숙박 시설) 개관
 自治省으로부터 「活力있는 마찌 만들기」 표창 받음
 地熱을 이용한 인공 造雪 실험 성공

1989: 地熱을 이용한 냉장창고(무우 저장에 이용) 완성
 小國町 商工會館(木造) 완성
 이벤트 「크라식의 모음」 개최
 「女性 포라손 89」(12시간 토론회) 개최

1990: 「유끼노 사또 스쿨 90」 개최
 「北里保育園」(木造) 완성
 「오구니 고전음악제」 개최
 「심포지움: 유끼의 地球宣言」 개최 (「유끼의 地球宣言」 발표)

오구니 출신 坂本善三 美術館 건설계획 발표
 木造建築群이 日本建築學會賞 受賞
 후꾸오카시 중심가에 오구니 목재(小國杉)로 지은
 비어·레스토랑 「하트란도(Heart Land)」 개업

1991: 「오구니 시나리오」(제2차) 책정

오구니 출신 末田龍介 작품의 記念碑 완성

미야자끼 町長은 옛날의 활발하던 농림업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또 마씨의 종심부인 미하라(宮原)까지 들어오던 國鐵 미하라선(宮原線)까지 폐지되는 상황에서 마씨의 행정을 물려받았다. 취임 후 2년여 동안 체제를 정비하고서 1985년경부터 우선 마씨의 이미지를 일신할 만한 하드웨어 부분의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오구니의 풍부한 양질의 삼나무 목재를 사용하여 「유끼의 고향」(悠木の里)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해나가는 일련의 건축사업이 널리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1985년에 완성한 목조의 「오구니 家畜市場」이었다. 이 시장은 종래의 실별한 市場과는 완전히 면모를 달리한 것으로 업무 전반이 컴퓨터화되어 있고, 현대적인 경매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80년대 중반부 오구니에 들어서기 시작한 木造建築群의 시작이었다.

이런 오구니 삼나무를 이용하여 건축한 ‘예술적인’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7년에 들어와서였다. 즉 1987년에 완성된 「유우 스테이션」과 「林業總合센타」, 그리고 1988년에 완성된 「오구니 뜰」, 「物產館」 및 「木魂館」은 오구니의 이미지를 일본 전국에 강하게 심어주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기획된 각종의 이벤트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오구니로 불러들이는 데 충분했다. 이런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國鐵의 적자 지방선인 宮原線이 폐지되면서, 그 駅舎를 불하받아 이 지방 특산의 삼나무(小國杉) 목재를 사용하여 건축한 중심적인 시설 제1호로 교통센타 겸 특산품 판매시설인 「유우(悠) 스테이션」이 1987년에 탄생하였다. 당시의 총공사비는 1억엔이었는데, 그 중 4천만엔은 國鐵(JR)의 轉換交付金이었고 나머지는 過疏債 및 邊地債로 마씨의 행정부에서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의 경영은 비공무원인 관장과 오구니의 役場 사이에 계약에 의해 위탁경영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이 시설은 그 자체로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바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을 추진하는 지도부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 시설은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키 스테이션’(key station)으로 發信基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면적 619m²(187평)의 「유우 스테이션」에는 1층에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소가 있고, 2층에는 철거된 鐵道 遺物 전시장, 갤러리 등이 들어서 있다. 2,461개의 오구니 삼나무 토막을 재료로하여 트러스工法으로 지었으며, 외

벽을 208장의, 검은 색채를 넣은 거울 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독특한 디자인의 木造 2층 원형 건축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강철재료를 사용하여 立體 트러스工法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은 있었지만, 목재를 사용하여 이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은 「유우 스테이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구니 둠」, 「林業總合 센타」 등으로 이어졌다. 이 모두가 쿠마모토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건축설계사 요죠에(葉祥榮)씨의 작품으로 이제는 일본 건축계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설계를 요죠에씨에게 부탁하게 된 것은 실로 우연이었다. 미야자키 町長이 특색있는 건축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던 중 어느날 건축 잡지에서 요죠에씨의 작품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우 스테이션」의 설계를 청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죠에씨의 작품인 「유우 스테이션」, 「林業總合 센타」, 그리고 일본 최대의 목조 지붕을 가진 町民體育館 「오구니(小國) 둠」, 이 세개의 木造 立體 트러스工法의 건물이 1989년에는 日本建築學會賞을 受賞하게 되었다.

오구니 전체 면적의 약 8할을 점하는 森林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山林業은 전통적으로 오구니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유지 방식이었다. 오구니의 나무는 인공림이 약 73%이고, 10년생 정도의 나무는 한번 가지를 쳐준다. 약 30년 정도 되어야 벌목한다고 한다. 오구니 삼림의 주종은 삼나무(杉)로 품종이 좋아서 한번 가지를 쳐준 후에는 가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다른 지역의 삼림에 비해서 노동력이 비교적 덜 들기기에 경쟁력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고도성장기 아래로 목재의 수요가 많아져서 토양이 나쁜 여러 지역의 삼나무에는 화학비료를 치기도 하지만, 이 오구니 지역에는 비료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비료를 치면 나무의 나이테의 넓이가 커져서 결국 질을 떨어뜨리기에 오구니의 삼나무는 그만치 양질의 목재로 평가된다라고 한다.

1987년에 완성된 「林業總合 센타」는 연면적 602m²(182평)의 시설로 오구니의 林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임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임산제품들을 전시하며, 공작실을 갖추고 있다.

오구니의 山林業을 촉진할 만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이보다 1년 전인 1986년에 제3섹타의 기업체로 설립된 「悠木産業(株)」이었다. 삼림을 保育하고, 素材를 생산하며, 농림산물의 생산, 가공 및 판매까지를 영업업종으로 하는 이 회사는 2,230만엔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오구니 마씨의 役場에서 1천만엔, 森林조합에서 1천만엔, 회사의 간부 15명이 150만엔, 그리고 기타 8명의 개인이 80만엔을 출자하였다. 바로 이런 식으로 관·민이 합동으로 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일본에서는 '제3섹타'라고 한다. 제3섹타 방식의 기업은 관으로부터의 행정적인 지원 및 자금지원 그리고 능력있는 인재를 끌어들여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오구니는 앞으로 중요 시설들을 민간에게 맡겨서 비지네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3섹타의 운영방식이 관청에 의한 경직된 관료주의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실제적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1988년에 완성된 町民體育館 「오구니 둠」은 역시 이 지방산의 오구니 삼나무 목재를 사용한 목조 트러스 공법으로 지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본 전국을 놀라게 했고 오구니의 지역활성화에 결정적인 활력소가 되었다. 외관이 UFO와 같아 생기기도 했고, 또 그 지붕이 마치 거북의 등과도 같다고 해서 '빅 터틀'(Big Turtle)이라는 별명으로도 통하는 이 둠건물은 5,602개의 삼나무만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목조 건물로서는 일본에서 제일 큰 것이다. 총 공사비는 6억엔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 65%는 '青年 定着補助金'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오구니 마씨의 행정부에서 현금 1억엔과 은행대부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役場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관리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근처에 있는 중학교의 각종 활동에는 무료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체육관의 내부는 2층의 관람석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3,215m^2$ (972평)이고 경기장의 면적만도 $1,496m^2$ (452평)로, 배구 코트 3면, 농구 코트 2면, 배드민턴 코트 6면, 테니스 코트 1면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음향통제도 완벽하여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음악연주회와 이벤트 개최지로서도 인기가 있다. 수용인원이 3,000석으로 여가이용의 장소로서 그리고 각종 문화, 스포츠 행사, 기타 이벤트 행사의 개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오구니의 木造施設群의 하나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木魂館」이다. 역시 1988년에 개관한 이 시설은 마을 사람들의 '生涯教育의 場'으로, 「배움의 고향」(學びやの里)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울 정도로 마을 사람들의 연수와 교류의 장소로서 오구니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무대이다. 목조건물 특유의 은은한 나무향내로 가득찬 관내에서 외지에서 온 방문객과 오구니의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교환함으로써 내일의 더욱 밝은 생활문화를 창출해내자는 의도로 지어진 시설이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회의실과 공연을 할 수 있는 홀, 시청각실, 다실, 그리고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거의 완벽한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오구니가 이런 하드웨어 시설을 기획하고 건설하던 단계에는 役場의 주도로 '町民 프레닝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을 진척시켰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마을 사람들과 役場의 직원을 포함하여 3-5명씩으로 팀을 구성하여 「유우 스테이션」과 「木魂館」의 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이런 팀은 각기 건물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 때 팀장을 맡았던 짚은 지도자가 각기 「유우 스테이션」과 「木魂館」의 館長이 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가난한 짚은 산촌에서 「유우 스테이션」, 「林業總合 센터」, 「오구니 둠」, 그리고 「木魂館」 같은 최신의 예술적인 건축물을 과감하게 준공시키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오구니를 유명하게 만들어 연간 70여만명의 관광인파와 시찰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산촌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오구니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여태까지의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양자가 가진 좋은 특성을 합하여 독자적인 지역만들기[지역진흥사업]를 하고자 한다. 즉 풍부한 자연환경을 여태 까지보다도 더 잘 보존할 뿐 아니라 뛰어난 환경과 풍경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활동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성숙한 삶에 맞는 거주환경과 문화환경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가 위해주고 도와주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기워나가고자 한다.”(小國町『振興計劃書』1991: 9)

이와 같이 오구니는 농촌이라는 틀에 박힌 관념을 초월하여 인간의 이상적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부흥을 통한 발전도식이 아니라 문화, 예술, 산업, 생활의 융합이라는 각도에서 균형있는 인간의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기존 농지와 산지를 가능한 대로 잘 보존하고 그와 관련된 농업과 임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오구니의 도심지대를 자연과 조화를 맞추면서 현대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오구니의 주요 하드웨어 시설들이 완성된 1988년 이래로 오구니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시설들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건축기술을 채용하고 있어서 그 하나하나가 사실 기념비적인 작품들이었다. 이와 같이 특색있는 마찌를 만드는 노력은 단지 공공의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오구니 사람들은 더욱 자신들의 마찌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

1993년 2월의 현지조사시에 우리가 관찰한 한 주유소(「하라다 가라스 스탠도」)의 신축공사 현장은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이 단순한 관주도의 사업만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 주유소는 기존의 주유소 시설 옆에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었다. 阿蘇 지역에서 후쿠오카 방향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는 국도 212호의 오구니 입구에 세워지는 이 주유소는 이 오구니의 얼굴 역할을 할 특징적인 건축물을 수많은 내방객이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주유소는 이 지역 출신으로 사업에 성공한 「하라다(原田) 콩크리트(株)」의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이 주유소의 건물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오구니의 이미지를 더 높이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유우 스테이션」과 「오구니 둠」을 설계한 요조에(葉祥榮)씨의 작품으로 주유소를 짓기로 결심했고, 결국 그의 희망사항이 실현되었다. 사실 이 건물의 공사비는 주유소로서의 격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총공사비가 무려 2억 5천만엔으로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였지만 지붕은 특수 유리로 되어있는 특이한 디자인으로, 그 유리만 해도 한 장에 4만 6천엔이어서 전체 유리 가격이 총 공사비의 1/3정도를 차지하는 8천만엔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 주유소 건물은 결코 돈벌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성공한 한 지역인 사가 ‘인생의 기쁨’으로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려는 의도에서 지어지는 것이라는 현장 책임자의 설명에서 좋은 이름을 남기려는 일본인의 사고방식의 일면을 읽을 수 있었다.(이 주유소 건물은 1993년 여름에 완성되었는데, 전체 건물을 유리로 덮었다고 해서 「ガラス ス坦도」로 명명되었다.)

「유우 스테이션」, 「오구니 둠」, 「林業總合 센타」, 「物產館」, 「木魂館」 등의 木造施設群은 사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전개의 무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지만, 독특하고도 첨단적인 디자인과 건축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오구니 마찌(小國町)는 일본 전국에 그 존재를 널리 알리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홀륭한 모델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여러 農山村 지역, 그리고 林業 경기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山村들의 공감을 얻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구니를 견학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오구니는 꼭 시찰을 목적으로 오지 않아도, 후쿠오카나 오오이마사에서 스이타테온천(杖立温泉)을 거쳐서 다시 큐슈 유수의 관광지역인 阿蘇山 국립공원 지역으로 가는 국도 212호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이 길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쉽게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오구니의 지도자들은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지역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벌이는 일이었다. 이미 1985년에 「스기토피아(杉Topia)오구니 祝祭」라는 주민 참가 이벤트와 「오구니 美術 훼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1986년에는 「전국 山村地域振興 심포지움」을 유치하여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벤트에 관한 노우하우를 쌓았다. 물론 이미 1986년에 오구니의 役場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한 「오구니 未來塾」이라는 연수과정을 통해 지역활성화 운동을 일선에서 담당할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각종 사업계획과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실천적으로 배운 것이 더욱 귀중한 경험들이었다고 우리가 면담한 젊은 일꾼들은 입을 모았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1988년에 들어와 「오구니 둠」, 「物產館」, 그리고 「木魂館」과 같은 기념비적인 시설들이 차차 개관되면서, 오구니 마찌는 이제 ‘이벤트와 交流의 時代’(若井康彦 1993: 82-83)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시대의 주역은 현장에서 일해온 젊은 직원들과 여성들로,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로 각 분야에서 무수히 많은 소그룹이 조직되어 각기 보람된 일을 찾아 활동하면서 마치 하나의 「오구니(小國)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오구니는 젊은이들의 활발한 소집단 활동으로 유명하다. 이를 인재양성이라는 각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 젊은이들은 이들 소집단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 및 정보를 입수하고 회원들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지역발전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미야자끼 町長은 이들 소집단 간부들과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시키기도 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마찌로서는 이들 소집단들과 주민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노력은 ‘배움의 고향’(習びやの里)으로 육성하고자하고 있다.

오구니의 여성들이 마찌의 지역활성화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1989년 12월에 「木魂館」에서 「오구니 마찌 女性 포라손 89」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것은 오구니의 여성들이 모여서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4개의 심포지움[Forum]이 마라ソン(marathon)식으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속해서 진행되는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포라손’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다. 이후로 수많은 소그룹이 조직되어 각기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여성들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지역활성화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현재 오구니에는 주요 여성 그룹이 30여개 조직되어 있고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女性 코미카레(Community College 를 지칭)」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면서, 농산촌과 밀착된 주제 및 관심있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모이는 시간도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영된다고 한다.

우리가 현지조사과정에서 접한 두개의 여성그룹은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그룹이 어떤 뜻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하나는 「픽코로 쿠치나」라는 클럽으로 오구니에 새로운 食文化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로 주부 8명이 모여서 만든 것이었다. 이태리어로 ‘작은 부엌’(*piccolo cucina*)이라는 뜻을 가진 이 클럽은 주로 이 지역의 신선한 무공해 농산물 및 절 좋은 축산물을 재료로 갖가지의 요리를 창의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클럽이 개발한 요리는 350여 종류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 요리를 연구한다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오구니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연수 및 숙박 시설인 「木魂館」의 식사는 이 클럽에서 맡아서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의 클럽 「OGUNI 비너스의會」(Oguni Venus Society; OVS for Single Lady)는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생업활동을 하는 젊은 미혼의 독신녀들로 조직된 것 이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벤트를 벌이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바, 이 클럽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일선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주고, 그들을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영역인 것 같다. 이 클럽의 회장(伊津見 純子)은 스이타테 온천 지역에서 조그마한 카페(じゅん؛ 준)를 경영하고 있는 독신녀이다. 그의 카페는 오구니의 지역진흥 활동가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좋은(성공적인) 장사꾼이 아니다. 장사가 내 목 적은 아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면서 자신의 카페가 지역의 일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町長 및 마찌의 관리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결코 장사꾼과 그의 고객간의 관계가 아니었고, 그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들에 대해 이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하는 모습에서 오구니의 활력이 내부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가 있었다.

이런 변화된 오구니 마찌는 이제 일본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 한해동안 오구니를 찾아온 손님의 추계는 무려 75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오구니에서 숙박한 사람의 추계는 36만명이나 된다. 1990년 4월부터 1991년 3월 까지 일년간 단체로 시찰이나 연수차 오구니를 방문한 사람은 570개 단체로부터 총 9,848 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127명이나 된다. 또한 관광객이 오구니에서 소비한 액수가 대략 40억엔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열린 이벤트를 보면 버스 터미널인 「유우 스테이션」 2층 갤러리에서 1991년에 약 35개의 행사가 있었고 1990년에는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구니 둠」에서는 1988년 6월 개관시에서부터 1990년 11월까지 잡힌 통계에 의하면, 개관 초기 2년반여에 걸쳐서 38개의 이벤트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1990년 8월 8일에 한국의 大田에서 온 한 女性合唱團의 공연도 들어 있다. 1990년 한해에 「오구니 둠」을 견학한 사람만도 8만 5천명에 달한다.

또한 연수 및 숙박시설인 「木魂館」 하나만 보더라도 1989-1991년 사이에 45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고, 1990년도의 통계로는 來館者 44,806명 중 연수숙박자가 1,416 명, 그리고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한 사람이 5,251명에 달했다고 한다(小國町役場, 1991年, 統計資料編).

오구니는 이제 일본 전국에서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게 하는 매력있는 곳으로 성장하였다. 이곳에서 기획되고 있는 이벤트는 지역적인 것에서 전국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몇개의 예를 들면 로마 실내 관현악단 연주회, 東京 바하·모짜르트 오페스트라 연주회, 볼쇼이 서커스단 공연, 全日本 여자 프로레스링 대회, 日本 리그 농구대회, 요미우리신문 교향악단 연주회 등이 여기에서 열렸고, 전국신문기자 연구회, 전국 지역만들기 연수회, 바로크 음악회 등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이벤트도 열리고 있다.

오구니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전체로서의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이벤트 사업을 벌이고, 천연자원인 温泉水를 이용하여 멀리서 온 방문객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로 특이하게 요리하여 대접하는 등 다른 어떤 지역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독특한 서비스로 외지인들을 대하여, 이런 사업을 통하여 이곳 농산촌의 사람들도 도시사람들에 못지않은 이른바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에서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온천의 경우, 온천욕을 하고 숙박을 하는 것은 일본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흔한 사업이므로, 오구니는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 온천이 가지는 다양한 요양 효과를 방문객들의 지속적인 건강과 연결시키는 소프트 기술을 상품화시키고 또 개발해내려 하였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와 소비생활 그리고 취업을 문화적 측면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경향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오구니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 이벤트 개최지, 그리고 자연과 인간생활의 조화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아름다운 산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脫工業化的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 산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문화교실, 외식산업,

호텔, 여행, 음악, 패션, 전통공예, 그리고 여러가지의 여가상품을 주로하여 문화적 및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산업부문 즉 문화산업에 착수해 보자는 것이 오구니의 기본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문화적인 마음의 풍요함’을 지향하는 방향에 맞추어 오구니를 발전시키고 이에 바탕을 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풍요가 문화적인 풍요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생활 패턴은 문화적인 욕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생존전략을 짜내려는 것이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발상과 함께 마찌 지도부는 오구니에 대체 어떠한 문화적 자산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였다. 오구니에는 농산물과 산채류를 보존하고 가공하는 전통적 생활기술이 있어 왔고 짚 세공, 죽 세공의 기술, 그리고 두개의 神社와 그 제사 등이 향토생활의 중심으로 가꾸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오구니의 傳統文化로서 계승되어 내려온 귀중한 문화적 재산으로서 오구니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양식이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현대에서도 계속하여 새롭게 소생시켜 유지하며, 이것을 현대 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인간생활의 문화적 르네상스를 맞겠다는 것이다.

4. 지역자원의 동원과 지역활성화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보다 현대화시켜 주민들이 현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구니에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즉 문화시설, 상업시설, 레저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오구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구니의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첫째로 오구니의 풍부한 삼나무(杉;스기) 숲과 그 원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둘째로 해발 1,500미터인 와이다산(湧蓋山)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 지역에만 있는 풍부한 地熱을 활용하며, 세째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울가에 자리잡은 枝立(스이타테)溫泉 지대의 독특한 입지조건을 관광 및 휴양지로 활용할 것, 그리고 이 외에도 다섯군데나 있는 온천자원을 활용하고, 네째로 일본을 대표하는 醫學者인 北里紫三郎 博士의 출생지가 바로 오구니라는 점을 활용할 것, 다섯째로 오구니의 특산물인 무우와 젓소(Jersey種) 乳製品을 활용하며, 여섯째로 1984년에 폐지된 철도선(宮原線)의 유적지를 활용할 것, 그리고 일곱째로 오구니 출신으로 이미 일본에서 이름난 畫家들(坂本善三, 末田龍介, 宮崎靜夫, 橋本隆齊)과 일본 詩調인 俳句로 유명한 이 지역 출신의 예술인들의 藝術世界를 활용하는 일 등이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小國町 1986: 21-26).

이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오구니의 지역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小國町 1986 참조).

1. 풍부한 오구니의 삼나무를 활용한 地域 디자인 事業

오구니에 풍부한 삼나무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건물을 짓고 이를 각종 이벤트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현대적 양식의 건축사업을 벌였다. 1986년부터 「오구니 家畜市場」의 목조건물의 신축으로 오구니의 木造施設群의 행렬이 시작되었고, 곧 이어 역시 '오구니 스기'를 이용한 <立體 트라스工法>에 의한 交通 센터「유우 스테이션」, 또 「林業 總合센터」, 町民 體育館 「오구니 둠」, 그리고 초현대적인 「木魂館」의 건설은 바로 이런 地域 디자인 事業의 일환이었다. 철근 구조물로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만, 목재로서는 이런 대형건물을 짓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는 점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각각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 오구니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살리고 오구니 시내를 문화적인 거리로 만드는 계획과 함께 치밀한 조경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구니를 흐르는 강, 폐지된 철도의 역사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자전차 도로를 설치하고, 각종 전통적 행사용 광장과 도로를 확장하고, 역사적 기념물을 최대한으로 살려 의학자 키타사또(北里) 博士의 記念館을 복원하고, 그 옆에 현대적 집회장소인 「木魂館」도 새로운 양식으로 건축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만들며 주차장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北里 박사의 文庫를 정리하며, 生家를 복원하고 숙소도 마련하였다. 「木魂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종 세미나와 연수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숙소도 갖추었다. 이 계획들은 오구니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화적,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와이다산(湧蓋山)의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많은 등산객과 휴양객이 찾아오는 이 지역에는 이미 캠프장이나 방가로 그리고 別荘 등이 있지만, 이들이 바로 이웃인 오구니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삼나무를 이용한 山莊(로그 하우스)을 짓는 사업도 진행시켰다.

2. 地熱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

오일 쇼크 이후 천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계기로 오구니는 와이다(湧蓋)산록의 풍부한 地熱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1980-1982년에 국가적인 지원으로 대대적인 深部地熱調査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이용가능한 热水가 시간당 270톤이나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것을 일반 가정은 물론 농산물 생산, 가공시설, 재배시설, 공공시설 등에 활용하고 나아가 리조트(스키장), 오락시설 등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구니는 이미 1988년에 이 地熱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눈(雪)을 만들어내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실험과 함께 앞으로 이 지역에 대대적인 리조트를 개발하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숙박시설과 함께, 오구니 특산의 목재를 가공하여 가구와 완구 등을 제조하는 「디자인 產業」과 목장을 갖추는 등 생산과 소비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는 등 증기(그거; yuge)를 이용한 理想郷(utopia)이라는 의미에서의 「유게토피아」를 건설하는 계획이 이미 실천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지개발 사업

九重連峰의 서쪽에 위치하여 기복이 심한 地形을 가지고 있는 오구니 지방은 아름다운 경관을 사랑하는 곳이다. 그리고 滉蓋山이 우뚝 솟아 있는 근방에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 특히 한개의 마찌에 온천이 6개가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드문 일이다. 이와 같이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과 온천을 잘 활용하면 홀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구니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스이타테(杖立)온천 하나뿐이었다. 기존 온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 山莊 전설, 스키장 건설, 森林浴과 기타 스포츠 시설 개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연중무휴의 觀光地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숙박, 음식, 토산물, 레크리에이션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마을 전체를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오구니의 관광을 인상 깊게 만들어서 한번 이 곳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매년 다시 찾아오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4. 지역자원 활용에 의한 특산물 개발

오구니 특유의 저어지 우유, 무우, 산채, 검은 돼지 햄 등을 재료로 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우량 乾燥材木의 상품화, 화학가공 목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민속예술품도 개발하였다.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인 「수제품 제작관(手づくりの館)」은 이미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해인 1985년에 개관되었다. 여기에서는 농산가공, 육류가공, 유제품가공 등의 분야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오구니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5. 오구니 인재양성 사업

오구니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전 있고 실천력 있는 인재와 조직을 양성하고 주민교육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住民大學을 개설하고 강좌, 전람회, 문화예술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주민의 문화예술적인 교양을 축적하고 창조적인 마을발전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기존의 農協, 森林組合, 商工會, 觀光協會 등의 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며, 더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각종 자원조직을 만들어 가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사람 만들기'(人づくり) 사업으로 불리운다.

현재 오구니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설과 중요 사업 중 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를 추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物產館」(일명 '피라밋또'; 特產品 판매장 겸 레스토랑): 오구니의 食文化를 선전하기 위하여 1988년에 준공한 것이다. 저어지 종(Jersey 種)의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버터, 치즈, 그리고 검은 돼지(黑豚) 햄, 소세지 등 오구니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시식도 할 수 있도록 식당을 겸하고 있다. 오구니 특산의 삼나무(小國杉) 목재로 건축한 이 「物產館」의 디자인이 피라밋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피라밋또'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구니 비프 스테이크는 이곳에서 인기있는 메뉴가 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 농산물로서 요리한 지방음식도 일품이다. 건물의 디자인이 특이하고, 위치도 오구니의 중심가인 미하라(宮原)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오구니를 찾는 사람들이 꼭 한번 들르는 시설이기도 하다. 農協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이 얼마나 인기있는가는 1990년의 통계로 7만3천여명이 이용하였고, 판매고가 1억 5백만엔을 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醫學者 北里 博士의 記念館과 生家: 破傷風 細菌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北里紫三郎(1852-1931)의 출생지가 오구니라는 점을 활용하여, 1764년에 세워진 그의 생가를 보존하고 그가 1915년 고향 청년들을 위해 방대한 서적을 기증하여 만든 도서관(北里文庫)과 당시의 건축양식인 貴賓館을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다. 바로 옆에 건립한 「木魂館」과 함께 이 일대를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고 있다. 1990년의 통계로는 記念館을 방문한 사람이 2만8천명(入館料 520만엔)을 넘고 있다.

地域教育: 오구니에는 6개의 小學校와 각기 1개씩의 中學校와 高等學校가 있다. 어린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부독본도 개발했다. 앞으로 공원과 농장을 갖춘 학교를 새로 건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오구니 마찌가 지역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는 이 지역의 니시사또(西里)소학교의 사례가 잘 말해주고 있다.

1991년에 준공된 이 학교의 건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총 공사비만도 2억 3천만엔이 소요되었다는 이 학교에는 현재 전교생이 23명뿐이다. 현지 조사 당시 1학년 5명, 2학년 8명, 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4명, 그리고 6학년이 1명뿐이고,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서 전부 6명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거의 얼굴을 맞대는 식의 열린 교육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교육을 위한 기자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갖추고 있었다. 이 시설은 앞으로 '山村留學制度'의 형식으로 일정기간 도시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맡아 교육시킬 계획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잘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오구니의 삼나무 목재로 지은 이 예술작품 같은 학교건물이 오구니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혀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만은 분명했다.

이와 같이 山村留學으로 오구니에 오는 都市學生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대한 鄉土愛를 어릴때부터 갖도록 함으로써 오구니를 떠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도록(U-turn) 유도하려는 데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또한 中國文化大學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중국어 강좌를 고등학교에 개설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고 있는 데서도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

6.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과

이상에서 우리는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오구니의 지역발전 계획도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마찌 레벨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브랜드의 지역활성화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오구니 방식의 지역활성화 사업의 특성을 요약해보기로 하자.

첫째로 오구니의 천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둘째로 최첨단의 공법과 디자인을 활용한 건축양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도록 대담한 투자와 세심한 연구를 하였다.

세째로 이벤트와 관광산업을 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네째로 도시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화 및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섯째로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화가 최대한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여섯째로 이 고장의 문화적인 유산을 잘 활용하였다.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눈에 띠게 많이 나타났지만 특히 산업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몇가지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현재 인구 10,285명에 세대수 2,883호의 조그마한 산촌인 오구니 마찌는 지역활성화 사업과 함께 엄청난 소득향상을 이룩하였다. 농가호수 1,110호와 임가 1,114호 합계 2,224호를 가지고 있는 오구니는 전체 세대의 거의 80%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농업에서 2종겸업이나 林家에서도 임업의 부분 취업자가 많아졌겠지만 전통적으로 농업과 임업을 주로 하였던 산촌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1988년도 쿠마모또현의 市町村民所得推計報告書에 수록된 통계(小國町 1991, 『統計資料編』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오구니의 총생산액은 172억엔으로 나타나 있고, 그 중 3차산업이 가장 많아서 98억엔(58%)이고, 그 다음이 2차산업의 43억엔(25%), 1차산업의 30억엔(17%)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농산촌인 오구니 마찌의 산업구조가 도시형의 3차산업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1차산업은 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산업구조가 변하였다. 물론 오구니에는 큐슈지역에서 이름난 관광 및 휴양지인 스이타테(杖立)溫泉이 있어서 이 마찌 내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 오구니의 3차산업의 규모가 커진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구니의 소프트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중요한 가용자원은 되었지만, 온천의 존재 그 자체를 오구니의 3차산업 또는 소프트 산업 진흥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1990년의 통계로는 오구니 노동인구의 47.6%가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3.3%는 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인구의 약 71%는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29%만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오구니의 전체 세대 중 약 80%가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는 있으나 실제 농업과 임업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전업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집에서는 과거 농업과 임업을 해왔으나 지금은 부모들만이 농림업에 머물러 있고, 젊은이들은 2, 3차산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이 나는대로 가업을 돌보는 파트타임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도 한해의 농산물판매실적은 약 22억 6천 5백만엔이며, 그중에서 오구니가 자랑하고 있는 고냉지채소 무우가 단일종으로 45%(10억9천만엔)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같은 해 축산물판매액은 약 10억엔, 그리고 유제품과 가공품판매액이 약 6천7백만엔, 「유우 스테이션」 매상고가 약 9천4백만엔, 목재관련 판매고가 약 17억엔, 온천을 중심으로 한 숙박자수가 37만명, 관광소비액이 약 40억엔, 온천장 入浴稅 3,120만엔, 도·소매업 부문의 연간 상품판매액이 약 88억엔, 음식점 상품판매액이 연간 약 2억7천만엔 등 오구니의 산업구조는 과거의 1차산업 중심의 영세한 규모에서 이제는 도시형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오구니의 모든 시설은 예외없이 철저한 비지네스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립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운영하려는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보완을 거듭하면서 짜내고 있다. 사실 거대한 시설들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인원을 보면 놀랄 만한 정도로 적다는 점을 발견한다. 몇가지 예를 들면(小國町『統計資料編』, 1991: 10), 「유우 스테이션」은 위탁경영을 하는 한명의 관장과 임시직원 8명(남자 1명, 여자 7명), 「오구니 둠」은 주간과 야간에 각기 한명씩해서 2명의 관리인이 전담하고, 「木魂館」은 위탁경영 관장 1명, 임시직원 4명(남성 2명, 여성 2명), 그리고 여성 요리연구 클럽인 「픽코로 쿠치나」의 멤버 11명이 요리를 담당하고 있고, 農協이 경영하는 특산물 판매 및 레스토랑인 「物産館」에는 4명의 직원(관장 1명, 조리사 등 3명)과 4명의 임시직원(주방 2명, 웨이트레스 2명)이 전부이다. 어느 시설에서도 한명의 인원도 직책과 임무에 있어서 낭비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본문화 일반의 특성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오구니 마씨의 생활조건은 지난 10여년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지진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주민들의 생활조건도 이에 대응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다양한 생활욕구에 부응하여 조직되는 각종 집단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해주는 것이 지방행정의 주요한 뜻이었다. 주민생활에서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에 맞추어 여러가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민생활의 안정은 무엇보다 소득의 안정에 있다. 이것을 위해 오구니가 가지고 있는 1차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도의 기술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또 이것을 제3섹터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려하고 있다. 그리고 3차산업을 정보, 문화, 예술, 관광, 이벤트, 휴식 등과 잘 연결시키고 교통망의 광역화에 맞추어 오구니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을을 걸어 다니기만 해도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을 사귀면 더욱 즐거움이 있으며 오구니에 와 본 사람은 한번 살고싶어 하는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계

회을 조정해 나가려는 마찌 지도부의 신념은 굳건했다.

오구니의 지역활성화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물론 이 운동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생적이고 내부적인 아이디어 및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오구니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찾아 끊임없이 대외적인 관계의 네트워크를 넓혀나간다. 수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木魂館」과 같은 연수시설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내부적으로는 얻지 못하는 자극을 얻게 된다. 그러기에 그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사람들 중 이 오구니에 매력을 느끼고, 오구니를 제2, 제3의 고향으로 삼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만약 이주를 자원하는 사람이 특출한 지식인이거나 마찌의 사랑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1992년에 후쿠오카에서 이주해온 음악가 아소(麻生 純)씨의 경우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페코다 연주가인 67세의 아소씨는 후쿠오카에서 거의 평생을 살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룹 렛슨, 합창 지도 등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오구니를 알고 나서는 결국 오구니를 그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말았다. 그는 「木魂館」의 앞쪽 언덕에 이 지역의 삼나무 목재로 홀륭한 저택과 공연 홀을 신축해서 이주해왔다(그는 이 공연홀을 오구니 마찌에 기증했다). 아직도 매주 한번씩은 후쿠오카에 나가 음악활동을 계속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오구니 저택에서 보내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의 저택은 거실에 목재로 바닥을 깔았으나, 그 밑에 전기로 온방장치를 해서 마치 한국식의 온돌방을 연상할 만한 시설을 갖춘 것이 이곳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제이기도 하였다. 이런 아이디어는 목재로도 이런 시설도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재적인 모범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주민들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관찰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한 주민회의(1993년 2월 13일)도 아소씨 저택의 거실에서 열렸었다. 이 회의는 마찌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간담회로, 役場의 기획팀의 젊은 직원 한사람이 참석했고, 20대에서 70대까지의 주민 약 15명 정도가 참석했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프랑스 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화가 미야지마 키코오(宮嶋喜久夫)씨가 위의 아소씨 저택의 옆에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아뜰리에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1993년 내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다. 이와 같이 이름난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의 이주를 오구니는 환영하고 있었다. 이점은 미야자키 町長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오구니의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자신들의 오구니를 인간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만족감을 안겨주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온갖 지원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

오구니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심심산골의 농산촌이 아니다. 해마다 벌이는 이벤트는 수많은 외부사람들을 이 마찌로 불러들인다. 해마다 그해의 연간 ‘이벤트 카렌다’를 제

작해서 널리 배부하고 있다. 1993년도의 카렌다도 5천부를 제작하여 내외에 배부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큐슈의 중심도시인 후쿠오카시의 중심가에 오구니 마찌 役場에서 직영하는 레스토랑 「하트란드(Heart Land)」를 열어서 오구니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이 지방의 특식을 도시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등 이제 바깥 사회로의 진출도 활발하다. 이 모두가 오구니의 활력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일꾼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긍지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받았다. 이런 일꾼들로 가득차 있는 사회가 경쟁시대에서 고지를 선점할 잠재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V. 결 론

일본의 지방 및 농촌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현지조사하고 난 뒤 한국 농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여러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았다. 일본의 농촌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 농촌사회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두나라 모두 番作 중심의 小農型 聚落社會이고, 역사와 전통이 기본적으로 儒教文化圈에 속하여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공통점과 유사성을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아직도 현저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본과 한국의 농촌을 기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맹목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요인을 한국 농촌사회라는 현실적 地平에서 한번 조명해 보고,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 農業의 危機, 그리고 농촌의 위기라는 暴風前夜와 같은 大轉換期를 맞이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들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요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농업과 농민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왔고 이와 동시에 지방사회에 극심한 피폐를 가져왔다. 1960년에 오면 농업 인구는 약 30%로 그리고 농업생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60년에 들어서면서 벌써 경제구조가 완전히 2차 산업과 3차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 결과 농업과 농촌은 피폐일로를 걷게 되고 일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인 농민의 지지 유지를 위하여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0년에는 동북지역과 큐슈지역의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所得倍增計劃〉이 발표되고 1961년과 1964년 사이에 〈低開發地域 工業開發促進法〉, 〈新產

業都市 建設促進法》， 그리고 〈工業整備 特別地域 整備促進法〉이 실시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소득격차의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방 도시와 지방산업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나 농업과 농민에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더 의욕적인 계획은 전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일본 국토 전체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1962년의 〈全國總合開發計劃〉(舊全總)이다.

이보다 앞서 1961년에는 〈農業基本法〉을 제정하여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농업생산의 하부구조를 현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舊全總과 농업기본법은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촌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산촌주민의 생활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65년에는 〈山村振興法〉을 제정하여 오지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작되었다.

산촌은 인구의 移出이 가장 심하여 자연히 過疏지역이 되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하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산촌을 구하고, 공업화와 과잉도시화로 인간의 삶이 매말라 가고 황폐해 가는 생태계의 재생과 보존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의 생활기반을 자연과의 조화에서 찾아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산촌사회의 재건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산촌진흥법의 실시로 1970년대에 오면 산촌의 하부구조의 혁신, 자연자원의 보존, 산촌주민의 복지대책이 팔목할 만한 발전을 보게 된다.

산촌사회의 환경과 사정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도시인과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산촌과 농촌은 전국민이 아끼고 도와야 하는 인간생활의 뿌리라는 인식을 공해에 찌들린 도시인들에게 강하게 심어 주게 된다. 1969년도에는 全國總合開發計劃(新全總)이 발표되고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개발혜택의 전국적 확대 등을 목표로 대규모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1977년에 실시된 제3차 全國相互開發計劃(三全總)에 따라 인간의 바람직한 定住환경건설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960년대부터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이고도 전국적인 지방육성 사업이 실시된 결과 1970년대부터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과 산촌을 쉽게 방문하면서 자연과 푸르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산촌진흥법의 3단계에 해당하는 1980년대 초반에 오면 〈매력있는 환경 만들기〉, 〈개성있는 마을 만들기〉, 〈활력있는 사람 만들기〉를 모토로 하여 도시인과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산촌주민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확대된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급격한 농업과 농촌의 몰락이 큰 자극제가 되어, 지방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어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방의 오지에 위치한 지역사회에도 각종 기반 시설이 완비된다. 도로, 통신, 주택, 위생, 교육, 보건, 복지 등 현대적인 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현대적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활성화 사업은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정비를 그 이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난 뒤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자신들이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모두 도시로 떠나가려고 하는 곳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이 일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농촌과 산촌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이를 위한 막대한 투자는 오늘날과 같이 지역활성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1965년부터 1984년의 20년 동안 산촌진흥법에 의하여 1,194개 산촌에 투자된 액수가 8조 4천 110억엔이라는 막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일본 정부의 산촌과 자연 그리고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결의가 어느 정도였던 가를 짐작케 한다.

사회적 배경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 할 수 있다.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하여 계속된 과도한 공업화와 대도시 생활이 가져다 주는 갖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분산, 자연과의 밀접한 교섭,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의 푸르름, 새로운 식생활 등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삶의 욕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사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출현하게 된다. 일본 정부에 의한 각종 사업도 이러한 것들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일부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예술인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방사회, 농촌, 농업, 자연에 대한 예찬과 동경, 그리고 복귀운동은 도시인과 정체당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시골에 사는 농민들에게도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고 보겠다. 이러한 것들은 삶의 본질에 대한 재정립과 아름다움에 대한 재정립을 촉구하는 것이었고 자연과 농촌, 그리고 산촌생활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이것을 ‘自然主義’라고 부른다면 일본이 오늘날 지역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계와 도시로부터 해방되어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일본 국민의 자연주의적 욕구에 크게 힘입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농촌과 산촌에서의 지역활성화 사업은 모두 도시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사회의 시대적인 배경이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공을 가져 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들이 조사한 두 지역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지역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우리들이 조사한 지역이 두개에 불과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人才養成이라고 보고 싶다. 오오야마나 오구니는 모두 홀륭한 일을 많이 해낸 곳이지만 여기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인물들이 있었다.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생활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며 마을의 현재와 미래를 째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추세와 국제사회의 동향 등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지도자와 주변의 인물들이 이러한 마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일본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을 지방에서도 불들어 둘 수 있었다고도 생각되지만, 폐폐한 지방사회를 외면한 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일본의 고등교육 역사가 오래되어 많은 인재들을 일

찍부터 많이 양성해 두었기 때문에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대졸의 고학력자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역시 고향 농촌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에 보람을 찾으면서 그대로 살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인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어떻든 시골 농촌에도 능력있는 고학력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들이 마을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을 설득하며 조직하고, 필요한 섭외활동을 하며, 자원을 끌어들이고 장기계획을 세우는 일 등이 모두 이를 지방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다. 젊은 일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동원하고, 또 주민들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할 필요는 없지만 대졸자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사회는 어떻게 하여 유능한 고학력자들을 농촌지방에도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을까? 이것이 한국과 일본을 차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지방관리 중 많은 사람들이 대졸자이고 선거로 당선되는 町長이 대졸자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운동의 일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 남녀들이 대졸자인 것도 보았다. 이들은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투시력과 마을의 발전에 대한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일본 농민의 강력한 공동체의식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인간적 유대를 기초로 한 촌락공동체의 전통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일본사회에서는 구성원들간의 공동체 연대의식은 모든 사회단위의 통합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마을 쿠미[村組]조직을 중심으로 각종 마을 행사가 아직도 계속되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 家業계승의 전통에 따라 長男의 歸農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하여 농촌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농가호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개별 농가의 성공사례보다는 마을 전체의 향상과 유대가 더 중요시된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개개 농가가 단위가 되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을 전체가 하나의 단위조직이 되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농가로 보아서는 위험부담이 훨씬 작은 편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하면 일본 농민의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공동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의 실례를 보아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것을 일본 농민들은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도 있어야 하지만 일반 농민들의 이해와 협동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성공한 농민 개인은 많지만, 성공한 마을이 적은 것을 볼 때, 일본과는 매우 좋은 대조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강력한 공동체 의식은 일본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關敬吾

1958 年齢集團, 『日本民俗學大系 3. 社會と民俗』, 平凡社.

龜地 宏

1984 『むらおこし ルネツサンス』, 東京: きょうせい,

大山町

1991 『ハ-ブティ-をご一緒に』, 大山町役場.

1991 『おおやま: 1991町勢要覽』, 大山町役場.

1992 『大山町勢要覽資料編』.

『過疎地域活性化計劃書(1992-4)』.

大山町農業協同組合

1987 『虹を追う群像』, 大分市: アドバンス大分.

1992 『N.P.C. 動く, 學ぶ, 愛し合う』, 大山町農業協同組合.

おおいた文庫

1982 『おおやま獨立國』, 大分市: アドバンス大分.

東畑精一・神谷慶治編(Tohata Seiichi; Kamiya Keiji)

1965 『現代日本の農業と農民』, 岩波書店.

福武 直

1965 『日本農村社會論』, 東京大學 出版會.

小國町

1986 『おぐにみらい 21』, 小國町役場.

1989 『THE 小國』, 小國町役場.

1991 『統計資料集』, 小國町役場.

1991 『悠木の里づくり』, 小國町役場.

1991 『Oguni New Scenario 1991』, 小國町役場.

1991 『小國町振興計劃書』, 小國町役場.

1992 『農業・農村の活性化について』, 小國町役場.

小山隆(Koyama Takashi) 編

1960 『現代家族の研究』, 弘文館.

小川全夫(Ogawa Takeo)

1990 『都市と農村の交流』, 農政調査委員會. (日本の農業 177)

柿崎京一・黒崎八州次良・間 宏編(Kakizaki Kyoichi; Kurosaki Yasujiro; Hagama Hiroshi)

1988 『有賀喜左衛門研究』, 御茶の水書房.

矢幡治美(Yahata Harumi)

1988 『農協は地域でなにができるか: 大分町農協の實踐』, 東京: 家の光協會.

若井康彦(Wakai Yasuhiko)

1993 熊本縣小國町における街づくりの實驗, 『月刊レジャ一産業』, 2月號: 80-85.

鈴木榮太郎(Suzuki Eitaro)

1940 『日本農村社會學原理』, 未來社.

熊本21世紀研究會

1991 『Big Talk: 地域づくり強化書』, まいんど.

二宮哲雄(Ninomiya Tetsuo)

1967 『日本農村の社會學』, 誠信書房.

鳥越皓之(Torigoe Hiroyuki)

1980 『일본사회: 집과 마을의 사회학』, 안병곤 옮김, 청하.

地方自治政策研究會 編

1989 『全國ふるさと創生一億円 デ-タ ブツク』, 東京: 第一法規.

平松守彦(Hiramatsu Morihiko)

1982 『一村一品のすすめ』, 東京: きょうせい.

後藤完一(Goto Kanichi)

1990 『がんばれ地方』, 第一法規.

Fukutake Tadashi

1982 *Japanese Society Today*, University of Tokyo.

Isobe Toshihiko

1992 "How We Should Integrate 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with Market Mechanism", Paper presented at World Congress for Rural Sociolog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atsuda Sonoko

1992 "Farm Mechanization and Women's Life Pattern", Paper presented at World Congress for Rural Sociolog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iyazaki Nobutoshi

1992 "Autonomy for a Little Country, Oguni," SD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Working Paper Series #4), University of Oregon.

Moon Okpyo

1989 *From Paddy Field to Ski Slope*,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Takahashi Akiyoshi

1988 "Japanese Agricultural Problem and Farming Family in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World Congress for Rural Sociology, Bologna, Italy.

A Study of Community Revitalization Movement in Rural Japan

Il-Chul Kim and Mun-Woong Lee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utmost effective utilization of existing resources made it possible to modernize and enrich the communities. In a sense,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movement can be said to create a new type of rural people, i.e., the rural people with self-confidence, strong solidarity and creative mind. This was in a degree supported by the strong tradition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in Japanese rural communities. Frequent meetings and discussions, and persistent studies among community members made it easy to cope with many problems generated by the process of modernizing the communities. Especially, the role of the local elites must be emphasized. Existence of well educated local elites made it possible to draw up the master plan to develop the community and implement the plan effectively. Well educated local elit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ets of rural communities in Japan today.

김일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Tel : 880-6406(O), 532-9344(H)

이문웅,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Tel : 880-6422(O), (0343)92-1263(H)